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산업

제 1176 호
(2024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출)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외국인 해기인력 확보 위한 노·사·정 합의 서명 / 4
-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회 세미나 참석 / 5
- 협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 참석 / 5
- WCPFC 제21차 연례회의 참석 / 6
- ICCAT 패널1 회기간회의 및 제24차 특별회의 참석/6
- CCAMLR 관련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추진 / 7
- 협회, 수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 7
- 협회, KMI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 8
- 인류의 미래 식량 자원 크릴 / 9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4년 11월 보고 내용 / 10



이달의 요리

- 이빨고기(메로) 전골 / 15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6
- 1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63달러 / 16

■ 참치어업 동향

- WCPFC, 연례회의서 선원 근로복지 표준 채택 / 17
- ICCAT, 가다랑어 어획전략FAD 감축 등 합의 / 18
- ICCAT, 새 조치로 책임 있는 어업 관리 강화 / 19
- 美 트럼프 관세, 통조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 20
- 중서부태평양 10월 어획량 감소, 전재량 증가 / 21
- 동부태평양 어획량, 전년 대비 32% 증가 / 22
- 日 냉동 눈다랑어 10월 수입 가격, 9월 수준 유지 / 23
- 日 냉동 참치류 10월 수입 통계 발표 / 24
- 참치 통조림 시장, 수십억 달러 성장 전망 / 25
- 달러 가치 상승, 참치 산업 및 무역에 영향 / 26
- 몰타, 생산량 증가에도 참치 수출 가치 하락 / 26
- 참치, 2023년 세계 통조림 무역 비중 43% 차지 / 27
- 타이유니온, 순이익 1억 1,000만 달러 증가 / 28
- 태국, 2024년 3분기 원어 수입량 기록적 수준 / 29
- 태국 아메리카 대륙형 통조림 수출, 27% 증가 / 30
- 태국 1~3분기 소규모 시장 통조림 수출 급증 / 30
- 참치업계 99.1% 보존 조치 준수 / 31
- EU, 상반기 냉동 다랑어류 원어 수입 증가 / 32
- EU, 코트디부아르와 참치 어업 협정 연장 / 32
- 베트남, 참치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 전망 / 33
- 오만 Simak, 첫 번째 참치 제품 출시 / 33
- 파푸아뉴기니 어업 현황 / 34
-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 / 34

원양산업
제1176호

발행
등록번호

2024년 12월 15일
1981년 8월 27일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편집인

김영규

Contents

- 인도, 수산 부문 강화 / 35
- 세네갈 참치 어업, 4년간의 FIP 끝에 MSC 달성 / 35
- 참치 셀레늄, 참치 속 수은 완전히 상쇄 / 36
- 오징어어업 동향
 - 글로벌 수요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가격 상승 / 38
 - 남미 오징어류, 고가 행진 지속 / 39
 - 러, 2025년 살오징어 어획 권고량 29% 삭감 / 39
 - 포클랜드 오징어 할당량 대폭 감소 우려 / 40
 - 中,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양어업 지속 / 40
- 명태어업 동향
 - 트럼프 재선으로 러시아 제재 철회 가능성 대두 / 41
 - 2025년 A시즌 명태 연육 가격 상승 예상 / 42
 - 러, 460만 톤 이상 어획 / 43
 - 러시아 명태,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 / 44
 - 러시아 H&G 명태 가격, 높은 수준 유지 / 44
 - 美 명태 ABC, 알래스카만 감소배링해 증가 / 45
 - 2024년 알래스카 명태 연육 생산 13% 감소 / 46
 - 러, 채산성 맞지 않아...“투자쿼터 원인” / 47
 - 러, 디지털화로 어업 허가를 더 빨리 취득 / 47
 - 러 하바롭스크 주, 베링해의 명태 어획 평가 / 48
 - 러, 6년 내 천여 척의 선박 고객 인도 예정 / 48
 - 日 니스이社,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49
 - 러시아 조선소, 환산생산용 트롤어선 추가 진수 / 50
- 꽂치어업 동향
 - 日 꽂치 11월 말 시점 어획량, 전년 대비 61% 증가 / 51
 - 꽂치 어획량, 회복 중이나 아직 갈 길 멀어 / 52
 - 일-러 간 어업 협상, 합의 실패 / 53

- 각국 수산 동향
 - 美 트럼프 당선, 수산업계를 미증유의 상황으로 / 54
 - 세계 식량 가격 상승 가속화 / 55
 - 세계 수산물 교역량, 지속 감소 예상 / 56
 - SEAFO 이빨고기 日 쿼터 274톤으로 증가 / 56
 - BRC, 세계 수산물 시장 연간 성장률 7% 전망 / 57
 - 인도네시아와 중국, 수산 협력 강화 / 57
 - EU 선단 2023년 어획량 감소, 어획물 가치 증가 / 58
 - 북동대서양 어업 관리 최근 악화 / 59
 - 제48차 러-페로 제도 간 어업위원회 회의 개최 / 60
 - 사할린 연어 어획량 예측, 57%만 충족 / 61
 - 러, 2024년 수산 제품 생산량 감소 / 61
 - 페루, 수산물 수출 증가 / 62



쉬어가는 난

- 명태(明太), 그 빛나는 큰 이름 - 이승룡 / 63



국내 수산 정보

-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4
- 11월 명태 국내 동향 / 66
- 대해수산, MSC 인증 취득 / 68
-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 69
- 원양업계, 수산업 선진국 수준 향상에 기여 / 70
- 우리나라, ‘해양 국가’ 인식에 비해 관심 부족 / 71
- 우리나라 EEZ 내 아열대성 어류 산란해역 늘어 / 71
- 올해 명태, 대구, 오징어 수입량 감소 / 72

협회, 외국인 해기인력 확보 위한 노·사정 합의 서명 원양산업 발전·해기전승 도모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과 함께 11월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식에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박상진 전무,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 아그네스수산 김학조 상무(이상 회사명 가나다순)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과 양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참치연승선사가 기관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양산업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룬 성과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해기인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선 국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회 세미나 참석 글로벌 해양안보·산업 전망 논의 및 원양산업 역할 제언



우리 협회는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및 양당 간사

위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였다.

세미나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 해수부 장관, 수산정책실장, 수과원장, 수협중앙회장, 한국수산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수산업계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국내 해양수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였고, 또한 수산·양식분야 기후피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협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 참석 협회장 “원양산업 중요성·인재육성 지원 필요” 강조

우리 협회는 11월 18일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 100년 대계, 새로운 인재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국 수산단체장 16인이 공동추진위원장이 되어, 전국에서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규 협회장은 기념 축사를 통하여, 해양수산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

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 수산 인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회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오로지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육성한 인재가 해양수산 분야의 신지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WCPFC 제21차 연례회의 참석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증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해수부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이석진 사무관, 김

정례, 나일강 주무관, 조업감시센터 김태린 전문관이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동원산업 박설민 차장, 동원수산 강성준 대리, 사조산업 태광호 과장 외 1명, 신라교역 김성철 차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및 해외협력1부 백상진 대리 외 1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는 양재걸 전문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보존조치 제정 채택을 비롯하여, 고래류·상어·북방청새치 등 각종 보존조치 제·개정이 논의되었다.

한편, 우리 업계와 협회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투발루와 2025어기 참치선망 입어약정에 서명하였다.

ICCAT 패널1 회기간회의 및 제24차 특별회의 참석

국별 이행 사항 검토 및 각종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사이프러스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 패널1 회기간회의 및 제24차 특별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EU, 미국, 일본, 중국, 가나, 세네갈 등 ICCAT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과 NGO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해수부 원태훈 주무관,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협력1부 백상진 대리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이행사항 검토 및 열대성다랑어 보존관리조치를 비롯한 각종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CCAMLR 관련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추진

보존조치 개정사항 및 이행 검토 등



우리 협회는 11월 26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보존조치 등과 관련, 사무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CCAMLR 사무국 측의 Isaac Forster가 전문가로 초빙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업감시센터, 해외수산협력센터가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정일산업, 티앤에스산업, 흥진실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진호정 해외협력2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CCAMLR 보존조치 개정사항 △보존조치 이행 검토 △로스해 데이터수집 프로그램 및 옵서버 샘플링 요구사항 △연승어업 데이터 수집 매뉴얼에 대한 설명 △크릴조업 신규 어획보고 양식 (C1) 초안 및 크릴 조업선박 부수어획 설문조사와 관련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협회, 수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원양산업 발전 관련 업계·언론계 의견 공유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10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수산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수산전문지 측에서는 농수축산신문, 어민신문, 오션21, 한국농어민신문, 한국수산경제, 한국수산신문, 현대해양(이상 가나다 순)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및 양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인사와 함께 원양산업 현안 및 필요한 해결 과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전문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회, KMI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협회 조성주 과장 감사패 시상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원장 김종덕)은 지난 11월 18일,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업관측센터의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해수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관측

중앙자문위원 등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조승환 국회의원이 기념 영상 축사를 보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양식 정책 비전 및 △수산관측 발전방향 △수산양식 정책 변화에 따른 수산관측사업의 발전 방향 △동북아 수산양식업 현황 및 전망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또한 수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관측 중앙자문위원 50여 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기획홍보부 조성주 과장이 원양어업 관련 각종 자문 및 협력 등 다년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협회 대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 조한솔 대리가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 일시 : 2024년 12월 21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역삼동성당 2층 대성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85길 23-11)
- 신랑·신부
 - 신랑 : 조성안 모연선 의 장남 재성
 - 신부 : 조기훈 의 장녀 한솔



인류의 미래 식량 자원 크릴

슈퍼 비타민으로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

크릴(Krill)의 어원은 원래 노르웨이의 포경선에서 “작은 치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말로, 다양한 종류의 부유성 갑각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현재는 ‘Euphausia superba’라는 반투명성의 새우 모양을 닮은 갑각류를 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크릴은 먼바다에 사는 곤쟁이란 의미를 담아 ‘난바다곤쟁이’로 불리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수명은 약 7년 정도이다.

부화한 지 약 2년이면 성숙하고, 여름철에 크게 성장하며 남극해역에 회유하는 수염고래류, 어류, 오징어류, 펭귄류, 조류 등 남극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의 주요한 먹이가 된다. 이처럼 다양한 포식자들이 한 종류의 먹잇감에 매달리는 현상은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며, 이는 크릴의 자원량과 번식력이 극도로 뛰어남을 알려준다. 자력 유영이 불가능한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일반적인 크기는 1~3cm이나, 남극 크릴은 6c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심해성 크릴은 14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크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식재료이다. 새우와 생김새가 흡사해 크릴새우, 남극새우로도 불린다. 청정한 남극 바다에 살며, 작은 생물이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먹이 없이도 200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남빙양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크릴은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 및 기타 영양분 함유량이 많아 인류의 미래 식량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릴에 함유된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오메가3부터 인지질, 아스타잔틴,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있다.

미국·노르웨이·캐나다 등에서는 일찍이 크릴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해 크릴을 미래 식량자원으로 집중

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노블 푸드(신소재 식품)’, KOTRA에서는 ‘한국인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로 크릴오일을 꼽기도 하였다.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은 붉은빛을 띠는데, 바로 아스타잔틴 때문이다. 아스타잔틴은 갑각류나 해양생물에 존재하는 붉은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는 비타민E의 500배, 비타민C의 6,000배에 달해 ‘슈퍼비타민’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크릴은 식생활을 개선해 줄 새로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양식사료나 가축용 사료로서의 효용성도 대단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기관 및 단체나 대학교 등과의 공동개발, 연구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크릴은 전 세계에 약 85종이 살고 있으나 남극을 둘러싼 남빙양이 주요 서식지이다. 남빙양에서 크릴 주요 조업시기는 3~8월경이며 이 중 4~6월에 잡히는 것이 흰색을 띠고 크기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크릴 조업은 1978년 12월 남북수산의 남북호와 국립수산진흥원 조사단이 남빙양에서 크릴 시범 조업에 나서면서부터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1988년까지 남북수산, 대호원양, 동방원양 3개사가 17회에 걸쳐 시험조업으로 크릴을 잡았지만, 어획량이 부진하였고 가공식품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크릴 조업은 경제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정일산업이 2년간의 시험조업을 끝내고, 1999년에 3천 톤급 조업선을 남빙양 크릴 조업에 투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크릴 상업화 시대를 열었다.

본래 전량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크릴은 현재 역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화물선 전복 사고 발생

- 10월 12일 프린세스 제시카 화물선이 다카르항 8번 부두에서 하역 작업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선원이나 항구 직원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고가 항만 운영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에 항구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린세스 제시카호: 토고국적, 1990년 건조, 길이 77m, 폭 12m, 총톤수 1,652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550
	3.4~10kg	1,450
	1.8~3.4kg	1,350
	1.5~1.8kg	1,200
	1.5kg 미만	1,000
눈다랑어	10kg 초과	1,200
	3.4~10kg	1,200
	1.8~3.4kg	1,200
	1.5~1.8kg	1,050
가다랑어	1.5kg 미만	850
	3.4kg 초과	1,400
	1.8~3.4kg	1,350
가다랑어	1.5~1.8kg	1,200
	1.5kg 미만	1,0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620	'24.12.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일본과 관광 부문 협력 강화

- 피지 관광부 장관과 일본 관광청장은 관광 부문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을 보장하는 목표로 MOU에 서명하였다.
- 이에 따라 관광산업 개발 필수 기술, 전문성, 역량 강화, 자원공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의 비상 상황에 서로 협력 및 지원키로 하며 양국의 오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나. 한국과 수자원 발전을 위한 협력 추진

- 피지 수자원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MOU 체결을 통하여 물관리를 위한 해법 및 역량 구축, 지식 공유를 통하여 피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이 협력키로 하였다.

다. 양식개발계획 수립

- 피지는 수산업을 격상시킬 4개년 양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업을 수익성 있고 환경친화적인 활동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피지는 이 계획을 통하여 규제 감소, 수산물 무역적



자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중 인식 향상, 투자 유치, 교육 훈련 지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50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75	'24.12.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중국과 수산 협력 강화

- 11월 9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수산분야 기술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 12가지 사항이 포함된 이 협정은 공동회사 설립, 어선 및 어획할당량, 어업 및 가공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키로 하였다.

나. 인도네시아 수산물 미국 수출 기준 충족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품질과 안전성이 미국 수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국제기준 HACCP 인증 및 수산물 유통관리 기준(SPDI)을 도입하여 수산물 수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 어선 허가 활성화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월까지 1만 4,386개의 어선 허가를 인가하여 지난해 대비 허가 승인이 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12해리 이상 수역 조업에 대한 허가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라. 새우 제품 수출 다변화 시도

-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발생한 냉동 새우와 새우 가공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6.9% 반덤핑 관세 발생에 따라, 미국 의존 수출에서 수출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 현재 관세율은 3.9%로 낮아졌지만, 새로운 신시장으로 일본, 호주, 한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 새우의 양과 질 향상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4.12.5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0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1~0.3톤을 어획하여 전월과 비슷한 어획률을 기록하였다.

나. 난파선 기름 유출

- 사모아 당국은 10월 초 암초에 가라앉은 마나와누



이호에서 디젤 20만 리터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 조사와 유출 연료 제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90
눈다랑어	라운드	1,390
가다랑어	라운드	1,390

어종	규격	가격(\$/톤)
남방대구	2L	2,750
	L	2,700
	M	2,350
	S	2,250
흑점새돔	2L	2,750
	L	2,750
	M	2,250
	S	1,80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88	'24.12.7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934	'24.12.3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양식업 성장 지원 필요

- 뉴질랜드 해양 부지의 0.01%만이 양식되고 있으며, 연어의 경우 양과 소고기보다 1만 6천 배의 수익을 내고 있으나, 10년간 생산량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료주의 문제 해결과 투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뉴질랜드 정부는 토착 주민인 마오리족에게 2004년 마오리 상업 양식업 청구 해결법에 따라 양식업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공기로 하였다.

나. 어가 동향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영국, 차고스 제도 인계

-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약 60년간 지속된 영토 분쟁은 종료되고, 영국과 미국은 차고스 제도의 군사 기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ENGEN	MGO	870	'24.11.12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하였다.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채낀기 어선주 회의소 (CAPA)는 수산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2025년 오징어 조업 시작을 1월 10일로 앞당길 것을 요청

- 10월 22일까지 오징어 하역량은 15만 3,7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하였다.
- 채낀기 조업선은 지난해 대비 4% 감소한 12만 8,000톤을 어획하였지만, 트롤 조업선은 145% 증가한 1만 9,443톤을 어획하였다.

나. 중국 기업과 항구 기반 시설 개선 협의

- 산타크루즈 주정부가 항구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중국 투자 관련 협상에 CAPA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CAPA는 중국은 IUU와 비합리적인 노동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 받아 왔으며, 중국 기업과 협상이 진전되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시장이 변화할 수 있고, 국제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제품이 중국의 불공정 제품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중국의 불법 어업, 페루 안보에 위협

- 페루 오징어 자원은 멸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나, 중국이 페루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하여 조업하며, 무단출입을 동반한 불법 어업을 통하여 오징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페루 자국 어선의 오징어 생산 및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어 감시 조치와 강력한 제재 등을 통

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조사에 따르면 불법 조업으로 기소된 중국 선박이 해군 산업 서비스(SIMA) 조선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국 조업선과 당국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140	'24.12.10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 부분 관심 필요

- 가나 수산 부분이 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석유 부문만큼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가나는 EU에 네 번째로 많은 참치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상당한 외환을 창출하고 있으며, 어업이 식량 안보, 영양 안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수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에 집중이 필요하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300
	10kg 이하	1,840
가다랑어	3.4kg 초과	1,550
	1.8~3.4kg	1,500
	1.5~1.8kg	1,350
	1.5kg 미만	1,200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60	'24.10.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취고 있다.

가. PNG 국내 수산업 현황

○ 바닷가재는 예년에 비해 시장의 비활성화로 조업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어가는 30~40%까지 하락하며 생산 업자는 운영에 어려움을

- 큰톱날꽃게(mud crab)는 연간 TAC인 1천톤의 수출이 8월에 이미 달성되어 현재 금어기를 실시 중이다.
- 잡어 조업선 4척 중 3척은 수익성 악화로 조업을 포기하고 현재 1척만 조업 중이다.
- 건어물 상태로 수출하는 해삼, 상어지느러미, 부레의 경우 조업 포기 및 수산청의 금어기 연장으로 올 해는 생산 활동이 미미한 상태이다.
- 지난 9월 PNG와 원양협회 간의 내년도 입어 협상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수산청장을 면담하여 원양협회에서 제안한 입어 조건에 대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76	'24.12.9



이빨고기(메로) 전골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이빨고기 140g 3팩, 두부 반 모, 양배추 50g, 청경채 1개, 양파 1개, 대파 1대, 황금송이 50g, 팽이버섯 1봉,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썩갠 한 줌, 멸치 육수 1,000ml
- 양념: 고춧가루 3큰술, 국간장 3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 이빨고기는 2022년 기준 수산물 수출 3위를 기록한 수출 효자 품목인 최고급 생선이다.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이빨고기는 반으로 자른다. 두부는 편으로 썰고 양배추도 손가락 길이로 길게 자른다.
- ② 전골 냄비에 적당한 크기로 썬 채소들을 담고 이빨고기를 올린다.
- ③ 육수를 붓고 양념장을 넣고 끓인다.
- ④ 마지막에 썩갠을 넣어주면 완성

※ 썩갠 대신 미나리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1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63달러

12월 11일 기준 667달러

12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2.80달러, WTI 가격은 70.29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3.52달러를 기록하였다.

12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67달러로 11월 11일(669달러)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12월 평균(12.2~12.11) 가격은 663달러로 전월 평균(11.1~11.29)인 674달러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전년 12월 평균보다 12% 하락하였고, 전전년 11월과 비교하면 28%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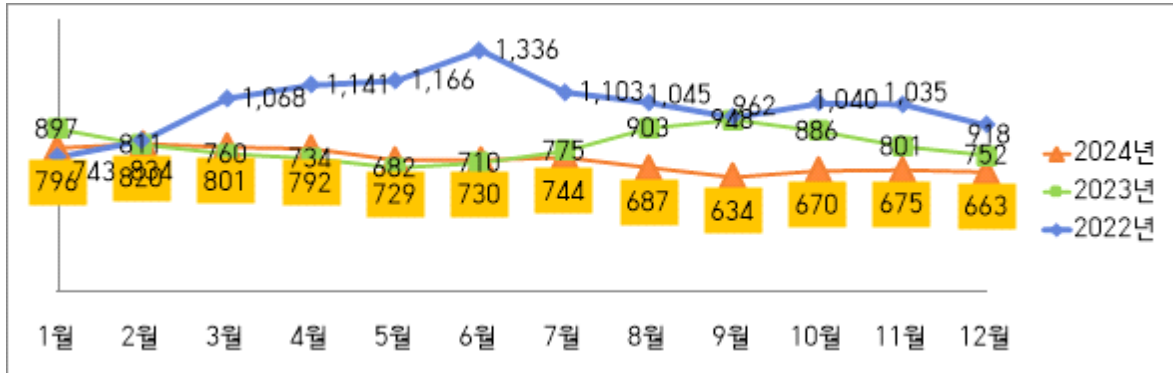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12.11) 가격은 731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9%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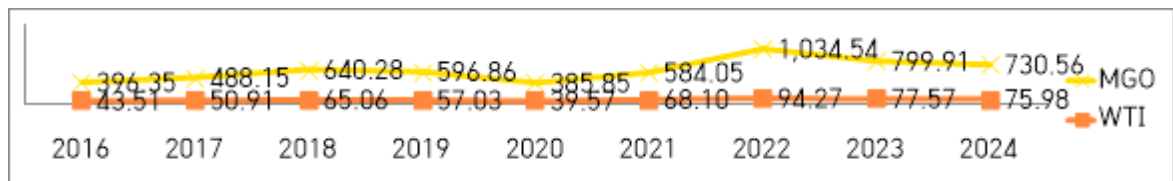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가 증산을 2025년 4월까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급 과잉 전망으로 하락세이다. 또한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유가 하락세를 심화시켰다.

석유 수급 부문에서는 석유 시장 공급 과잉 우려와 미국 석유제품 재고 증가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 금융 부문에서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정학 부문에서는 미-중 무역 마찰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WCPFC, 연례회의서 선원 근로복지 표준 채택

日 참다랑어 쿼터 증대 등 채택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근로자와 선원 복지 개선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와 전자 감시(이하, EM)에 대한 임시 표준을 채택하였다.

선원 노동 표준에 대한 보존관리조치(CMM) 개발은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FFA) 회원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중서부태평양 조업선의 선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이 규정은 향후 3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선원 표준은 중서부태평양 조업 선박에서 선상 인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수년간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다. WCPFC는 작년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관리 조치를 위한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17개 FFA 회원과 그 외의 태평양 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였다.

FFA 부국장 피오 마노아는 노동 기준 채택이 선원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에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고 말하였다.

EM 기준이 없는 유일한 참치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라는 이유로 반발에 직면했던 WCPFC도 이 문제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은 WCPFC의 결정에 대하여 "WCPFC는 이제 동부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다른 참치 RFMO와 같은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도 최근에 EM 기준을 채택하여 곧

바다 전체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찬사를 보냈다. 퓨 자선재단은 또한 EM이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어업자들이 WCPFC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제 규정 강화는 회의에서 큰 기대를 받던 의제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연승선 해상 전제에 대한 허점을 막는 것이 특히 주된 논제였다. 그러나 WCPFC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 수산청은 WCPFC에서 일본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가 2025년부터 증대되기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수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어획 쿼터는 30kg 이상의 대형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50% 증가하고, 소형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10% 확대될 예정이다.

이 쿼터 확대 계획은 지난 7월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열린 WCPFC 북부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WCPFC는 화요일까지 피지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새로운 쿼터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의 어획 쿼터는 대형 참다랑어의 경우 기존 5,614톤에서 8,421톤으로 3년 만에 증가하며, 소형 참다랑어는 4,007톤에서 4,407톤으로 역대 처음으로 증가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례 회의에서 WCPFC는 2026년에 어획 쿼터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2월 3일자,

The Japan Times, 2024년 12월 4일자



ICCAT, 가다랑어 어획전략FAD 감축 등 합의 눈다랑어 쿼터 증대, 황다랑어 쿼터 유지

11월 18일자로 종료된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이하, ICCAT) 연례회의에서는 대서양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관련 사안을 다루는 15개의 새 권고안과 2개의 결의안이 나왔다. 주요 사안은 서부 가다랑어 자원 어획 전략 및 선박당 부유형 FAD 감축, 45일 금어기, 눈다랑어 쿼터 증대에 대한 합의 등이었다.

ICCAT는 열대 다랑어 다년간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5년간의 광범위한 논의 끝에 새로운 조치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은 현행 6만 2,000톤에서 7만 3,011톤으로 증가하였고, 소규모 어업에 6,100톤을 보장하는 새로운 어획량 한도 할당표가 나왔다.

ICCAT은 황다랑어의 TAC를 11만 톤으로 유지하기로 동의하였는데, 이는 일부 전문가의 우려를 낳았다. 대서양 선단의 최근 수년간 황다랑어 어획량이 TAC보다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연구통계상임위원회(이하, SCRS)는 위원회에 황다랑어 어획량이 채택된 TA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회원국들이 논의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서부 가다랑어 자원에 대한 잠재적 관리절차(이하, MP)인 어획 전략이다. ICCAT은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MP 채택이 2026년 이후의 TAC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CRS는 올해 초 동부 및 서부 가다랑어 어족자원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

〈FAD 조치〉

회원국들은 FAD 관리를 위한 강화된 조치에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치어(Juvenile, 성체와 유체 사이의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 보호를 위하여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의 금어기를 채택하였다. 이 금어기는 현행 FAD 금어기(1월 1일~3월 13일)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형 FAD에 대한 단계적 감축안도 나왔다. 2025년에 부유형 FAD 수는 선박당 300개로 제한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88개로 감축된다. 회원국들은 또한 2028년까지 생분해성 FAD로 전면 전환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기타 조치〉

위원회는 남부 대서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운영관리목표에 합의하였다. 관리전략평가(이하, MSE)에 대한 로드맵이 갱신되었고, 여기에는 2025년에 시작될 남부 대서양 날개다랑어와 북부 및 남부 대서양 청상어 자원에 대한 새로운 MSE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금지하고 데이터 보고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ICCAT은 동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 다년 관리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특히, 다랑어 양식과 인공부화 어류를 사용한 양식으로 생산되는 참다랑어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조치와 관련된 측면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알제리와 튀니지의 어업 수요를 반영한 지중해 날개다랑어 복원 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합의



가 이루어졌다.

고래상어와 쥐가오리(mobulid ray)에 대한 규정은 각각 2025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발효된다. IATTC는 또한 오피서버 프로그램과 전재 작업에서의 오피서버 건강 및 안전 보호에 대한 권장 사항을 채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추가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은 다음과

같이 올해 IATTC의 활동을 호평하였다. “ICCAT는 어업 관리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대서양에서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기후 변화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는 ICCAT의 선도를 따라 어업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19일자

ICCAT, 새 조치로 책임 있는 어업 관리 강화 과학 기반 전략, 보존 및 소규모 어업에 중점

키프로스에서 열린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연례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열대 참치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이 합의에는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을 늘려 개발도상국 연안국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유럽 선단의 조업 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이정표는 참치 어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생분해성 및 엉킴 방지 집어 장치(FAD)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U 선단의 승리로 FAD 어업 폐쇄 기간이 72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 이 합의는 향후 FAD 폐쇄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ICCAT은 또한 열대 참치 관리 전략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접근법은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자원의 건강과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관리 프레임워크

를 구축할 것이다.

ICCAT은 효율성을 높이고 라이온 만의 소규모 어선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다랑어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승인하였다. ICCAT는 참다랑어 양식업의 추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황새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ICCAT은 북대서양 황새치에 대한 관리 절차를 도입하여 TAC를 설정하고 어획 한도를 이에 맞춰 조정하였다. 여기에는 EU의 연간 어획량 할당량을 1,569톤 늘린 것 포함한다. 추가적인 보존 노력에는 상어 보호를 강화하고 청새리상어에 대한 관리 전략 평가를 시작하기 위한 EU 주도의 제안이 포함된다.

대서양과 인접 수역에서 참치 및 관련 어종의 보존을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인 ICCAT에는 52개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EU는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출처: Global Seafood, 2024년 11월 19일자



美 트럼프 관세, 통조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관세 부과로 통조림 가격 영향 등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그의 임기는 세계 참치 및 수산물 산업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25일, 트럼프는 모든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상품에는 기존보다 10% 높은 관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및 중국산 참치 통조림 무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올해 초 대선 캠페인 시작 당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최대의 통조림 공급국 중 하나인 멕시코 가공업체의 우려를 낳았다. 2023년, 멕시코는 미국에 1만 5,455톤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캐나다와 중국산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의 최근 결정은 미국 내 참치 통조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매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참치 통조림이 수혜국 지위 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없는 한, 가다랑어 제품에 대하여 12.5%에서 3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USMCA는 여전히 유효하며 수많은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트럼

프가 제안한 관세 안으로 인하여 참치 통조림 수입에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캐나다는 소량의 날개다랑어 통조림을 미국에 수출한다. 2023년에 캐나다산 날개다랑어 제품은 미국에 124.2톤이 수출되었다. 오랫동안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미국에 줄삼치(bonito)와 참치 통조림을 수출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최대 참치 자숙 로인 공급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전 임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 갈등을 빚었고, 2018년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중국의 자숙 로인 미국행 수출 사업에 타격을 입혔다. 2023년 중국 자숙 로인은 미국에 384톤만이 수출되었다. 줄삼치 수출만이 2023년 5,182톤으로 유지되었다.

관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그 영향은 관세의 구조와 면제되는 특정 범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미국 뉴스 사이트가 보도하였다. 글로벌 참치 시장 이해 관계자는 이에 우려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9일자



중서부태평양 10월 어획량 감소, 전재량 증가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 영향

중서부태평양에서의 10월 어업 노력량이 9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다랑어류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10월 선망선단의 어업 노력량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9월 55%), 마이크로네시아에서 17%(9월 11%)였다. 팔라우에서는 0.13%, 솔로몬제도에서는 7%, 공해에서는 6.4%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키리바시에서는 9%, 마셜제도에서는 1%, 나우루에서는 3%, 투발루에서는 1%로 감소하였다.

10월 선망 어획량은 11만 4,500톤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가다랑어 어획량이 8만 5,500톤으로 전월 대비 25%나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소형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1,500톤(14% 감소), 1만 1,200톤(3% 감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형 눈다랑어와 대형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각각 812톤(75% 증가), 1만 5,500톤(32%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어업 노력량 비중이 컸던 PNG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획량 비중 또한 각각 전체의 58%, 15%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획량이 증가한 수역으로는 키리바시(전체의 7%), 솔로몬제도(5%), 투발루(0.8%), 공해(11%)가 있다. 팔라우와 토켈라우에서는 10월에 어획량 보고가 없었다.

10월 중서부태평양의 전체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23%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9% 감소하여 올해 최저 평균 일일 수준을 기록하였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EEZ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8월에 9% 증가한 37톤이었으나, 10월에는 하

루 29톤으로 하락하였다.

가장 많은 일일 어획량을 기록한 수역은 공해로, 15% 증가한 일일 평균 51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비상군(free school) 조업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다음은 일일 30톤을 기록한 PNG 수역으로, 9월 수치인 일일 41톤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에서는 증가하였고, 마셜제도, 나우루, 솔로몬제도에서는 감소하였다.

10월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21톤으로 올해 최저 수준이다. 이는 9월 대비 29% 감소한 수준이며, 전년도 10월 대비 48%나 감소한 수치이다. 2019~2023년 10월 평균과 비교해도 18% 적은 수치이다.

대형 황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3.9톤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대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0.2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형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각각 2.8톤과 0.4톤으로 감소하였다.

중서부태평양에서의 10월 다랑어류 어획량은 18% 감소하였으나, 전재량은 약 10% 증가하였다.

10월에는 총 132건의 전재가 보고되었고, 전재량은 총 8만 1,300톤이었다. 전월인 9월의 전재 건수는 113건이었고 전재량은 7만 3,909톤이었다.

9월 총어획량의 11만 4,500톤으로, 이 중 약 29%만이 PNA에서 전재된 셈이다. 9월에는 어획량의 45%가 PNA에서 전재되었고, 8월에는 33%였다. 이러한 추세는 수익성 높은 태국과 필리핀 가공업체로의 판매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18일, 19일, 21일자



동부태평양 어획량, 전년 대비 32% 증가

역대 최다 어획량 기록 예상

올해 대부분의 조업 기간 동안 동부태평양에서 유례 없는 양의 가다랑어가 어획되면서, 동부태평양의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의 전체 어획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동부태평양 1~3분기(1~9월) 어획량은 총 77만 6,668톤이다. 7월까지의 어획량 누계는 40만 1,392톤이었으므로, 이는 8~9월 동안 37만 5,276톤이 어획되었음을 의미한다.

2023년 동부태평양에서의 어획량은 역대 최대치였으나, 2024년의 어획량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랑어류 어획량 추세는 2020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 3년간 급증하였다. 2024년 초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회의에서 위원회는 동부태평양의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가다랑어의 2024년도 누계 및 월별 어획량은 지난 13개년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로 FAD로 어획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의 가다랑어 어획량 누계는 전년도 동기 대비 69%나 증가한 49만 3,510톤으로, 에콰도르 선단이 매우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고, 파나마와 멕시코 선단도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참다랑어 어획량은 3,533톤으로 134톤 증가하였다. 기타(others)로 분류된 다랑어류 유사종의 어획량은 7,134톤으로 10% 감소하였다.

에콰도르 국적 선단은 올해 동안 최상의 어획 시즌을 보냈다. 이들의 올해 1~3분기 어획량은 32만

3,675톤으로 가다랑어 어획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동기 대비 9만 2,000톤이나 증가하였다.

파나마 국적 선단의 1~3분기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58%나 증가한 10만 9,604톤으로,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콜롬비아, 페루, EU(스페인),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어획량은 27% 증가한 15만 2,307톤이었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9일자

EPO Skipjack Sky-High Catches

EPO Catch Volumes Per Species Up To Q3 (In M/T)

	2022	2023	2024	Diff. %
Skipjack	249,742	291,666	493,510	69%
Yellowfin	239,217	256,691	247,414	-4%
Bigeye	23,507	28,640	25,077	-12%
Bluefin	3,194	3,399	3,533	4%
Others	10,271	7,907	7,134	-10%
Grand Total	525,931	588,303	776,668	32%

<2022~2024년 1~3분기 동부태평양 어종별 어획량>

Ecuador's Fleet Experienced Excellent Fishing

Tuna Catching Per EPO Fleet Up To Q3 (In M/T)

	2022	2023	2024	Diff. %
Ecuador	201,075	231,575	323,675	40%
Mexico	121,915	143,951	162,445	13%
Panama	73,750	69,295	109,604	58%
Venezuela	37,269	23,295	28,637	23%
Others	91,922	120,187	152,307	27%
Grand Total	525,931	588,303	776,668	32%

<2022~2024년 1~3분기 동부태평양 국적별 어획량>



日 냉동 눈다랑어 10월 수입 가격, 9월 수준 유지 2개월 연속 가격 횡보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10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60톤(전년도 동월 대비 4% 증가), 수입액 6억 7,900만 엔(7%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7,824톤(27% 증가), 수입액 137억 4,700만 엔(35% 증가), 가공품 수입량 4,771톤(12% 증가), 수입액 39억 2,900만 엔(12% 증가)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수입 단가는 kg당 평균 680엔(전년도 동월 대비 7% 하락)으로, 9월 가격인 679엔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가격은 677엔(6% 하락)으로, 9월 가격인 671엔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년간 계속된 가격 하락세로부터 반등은 없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운반선의 해상 대기 문제는 최고점을 지났으나, 초저온 냉동고에는 여전히 횡감용 다랑어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말 판매 경쟁에 대비한 수요는 주로 태평양산이나 지방이 오르는 시기에 어획된 대서양산에 집중되고, 그 외 시기에 어획된 대서양산이나 인도양산 등의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다.

일본 현지에서는 지중해 연안국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을 입고할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2024년 시즌에 kg당 2,138엔(2023년도 대비 43% 하락)으로 급락하였던 단가의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협상과 세계적인 컨테이너 부족 현상,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 우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늦은 시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도쿄 도요시시장에 따르면, 10월 냉동 눈다랑어(40kg 이상)의 상장 마릿수는 1만 2,303마리로, 전년도 동월 대비 10%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경-태평양산의 상장 수는 3,534마리로, 전년도 동월 대비 38% 감소하였다.

공표된 kg당 증가(中值,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는 서경-태평양산이 1,037엔(전년도 동월 대비 8% 상승)으로, 9월 가격인 kg당 1,022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대서양산은 전년도 동월 대비 6% 상승한 kg당 913엔이나, 올해 9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말 판매 경쟁에 사용될 양품의 사들이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눈다랑어를 조업하는 태평양 조업선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이 일본에서 비교적 어장이 가까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가와 경비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장이 먼 서경은 출어선이 급감하여, 요선(僚船, 같은 함대나 선단에 딸린 각 선박) 부족으로 탐색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반면 대서양은 참다랑어의 어획 한도가 늘어나면서 착수는 안정되어 있다. 중서부대서양의 눈다랑어 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계절이나 어장에서 따라 다르지만, 품질은 대체로 태평양산이 좋은 편이므로, 총량이 많아도 양품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남방다랑어나 참다랑어,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등의 냉동 제품 품질은 좋은 편이며, 일본 자국산 양식 참다랑어 선어도 있다. 반면 냉동 눈다랑어는 양품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업 및 도매 담당자들은 품질이 좋은 태평양 눈다랑어 어선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1월 18일, 12월 5일자



日 냉동 참치류 10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02톤 수입

〈 2024년 10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34	4	77	23	214	179	74	84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711	426	865	2,664
	VU*	-	-	121	740	333	104	23	4	-	598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367	225	377	176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1,315	834	1,315	3,522
황다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249	851	321	246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437	511	624	723
	대만	7,98	970	1,118	1,742	1,172	891	1,259	1,070	602	1,166
	팔라핀	-	-	49	-	-	49	49	27	-	15
	안니	-	-	-	-	-	-	1	-	26	-
	미국	-	-	-	-	-	-	-	-	-	-
	VU*	36	26	212	152	139	211	144	207	95	165
	피지	-	-	13	-	-	-	-	-	-	-
	KI*	-	-	-	27	-	17	-	-	5	25
	MH*	-	-	45	-	-	-	-	-	-	99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1,211	1,214	518	501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3,351	3,880	2,192	2,939	
눈다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297	475	223	202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796	1,126	465	970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3,255	2,323	2,600	3,103
	팔라핀	-	-	-	0	-	-	-	-	-	-
	안니	-	-	-	-	-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338	1,421	855	370	406
	VU*	52	17	378	442	259	665	177	152	146	201
	기타	110	4	378	169	147	48	80	60	103	162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6,025	4,991	3,906	5,043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17	-	-	-	-	-	211	171
	대만	95	143	1	6	3	-	-	-	9	68
	호주	-	-	19	-	-	-	200	1,429	1,619	1,521
	소계	95	301	37	6	3	-	200	1,429	1,839	1,760

* VU: 바누아투 / KI: 키리바시 / MH: 마셜제도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2월 5일자



참치 통조림 시장, 수십억 달러 성장 전망

연평균 4.56% 성장 예상

참치 통조림 시장은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 트렌드, 세계화, 제품 혁신 개발 등의 요인에 힘입어 20231년 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은 최대의 참치 통조림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다 소비 어종은 가다랑어, 그다음은 황다랑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개국 이상의 공공-민간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시장조사컨설팅 기업 VMS는 범블비, 치킨 오브더시, 센추리퍼시픽, 트라이마린, 하고로모 등 여러 참치 기업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VMS는 세계 참치 통조림 시장 규모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4.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조림 시장의 가치는 2024년 기준 89억 4,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2031년에는 127억 7,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큰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건강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고단백 저지방 식단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참치 통조림은 단백질 공급원이자 오메가-3 지방산 함유량이 높은 영양식이다.

둘째, 식품 공급망의 세계화로 인하여 참치 통조림을 세계 곳곳에서 접하기에 더욱 쉬워졌다.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 또한 이러한 편리성의 증대에 더욱 이바지하였다.

셋째, 생산자가 소비자의 관심을 얻을 방법을 계속 해서 개발하고 있다. 참치 통조림 및 파우치 제품은 다양한 맛, 환경친화적 포장, 편리한 1회 분량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저지방 또는 식물 기반 대체품 등의 선택지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참치 통조림 부문이 직면한 난관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난관에는 남획 및 혼획, 그리고 자연재해나 노동 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가격 영향 문제가 있다. 수은 함유량이나 히스타민 오염 등 건강 및 안전 표준 관련 사안도 우려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VMS는 “미국인들은 매년 약 10억 파운드의 참치 통조림과 파우치 제품을 소비한다. 참치 통조림에 대한 이와 같은 폭넓은 수요는 미국인의 식단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앞으로도 참치 통조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북미 시장은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참치 통조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9일자



달러 가치 상승, 참치 산업 및 무역에 영향

11월 말 유로화-달러 가치 거의 동일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6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유로화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미 대선 당일 초반 달러 가치는 0.9146유로였으나 같은 날 0.9321유로까지 상승하였다. 1월 22일 달러 가치는 0.9652유로로 1유로와 거의 동일해졌다. 25일자로 달러의 유로 가치는 0.9543유로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트럼프에게 있어 좋지 못하다. 금융 매체들은 달러가 과대평가 되어 세계 경제 리스크를 증대시킬 것이라 우려하였다.

유로 약세는 무역 시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는 EU 소매업체, 브랜드, 무역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 특히 에콰도르,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필리핀 등 EU

의 주요 참치 통조림 공급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참치 통조림 수입 가격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4분기에는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가공업체는 원어 매입 및 최종 생산품 판매 시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태국 가공업체는 운영 비용 및 인건비를 태국 바트로 지급한다. 7월 말에 1달러는 36바트였으나, 11월 말 시점에는 34.5바트이다.

유로화 하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로존 국가를 위협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7일자

몰타, 생산량 증가에도 참치 수출 가치 하락

수출 다각화 등 산업 지속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

몰타 양식생산자연맹(FMAP)은 2023년 몰타의 양식 부문 수출액이 1억 9,124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40%(1억 1,100만 유로) 감소했다고 말하였다.

이는 몰타가 지난 4년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몰타는 대서양 참다랑어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FMAP의 CEO인 Charlon Gouder는 일본과 중국의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하여 몰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Gouder CEO는 해수 수질 변화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입 재고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Gouder CEO는 몰타와 중국 간 수출 합의를 언급하며 얼마 전 연맹이 정부와 함께 업계가 다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가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 출처: LovinMalta, 2024년 12월 1일자



참치, 2023년 세계 통조림 무역 비중 43% 차지 정어리, 고등어, 연어 순으로 뒤를 이어

참치 통조림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통조림이다. 2023년 말까지 참치 통조림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이다. 2위는 정어리 통조림(10%), 3위는 고등어(5%), 4위는 청어(4%), 5위는 연어(3%)가 차지하였다. 이는 FAO의 2019~2023년 통조림 생선 국제 무역 조사 결과이다.

생선 통조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식품군 중 하나이다. 주된 이유는 냉동 및 신선 생선에 비해 편리하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수산물 및 양식 제품의 국제 무역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 FAO는 2023년 말까지 전 세계 수입량을 3,200만 톤, 1,713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통조림 제품은 10%인 320만 톤, 175억 4,000만 달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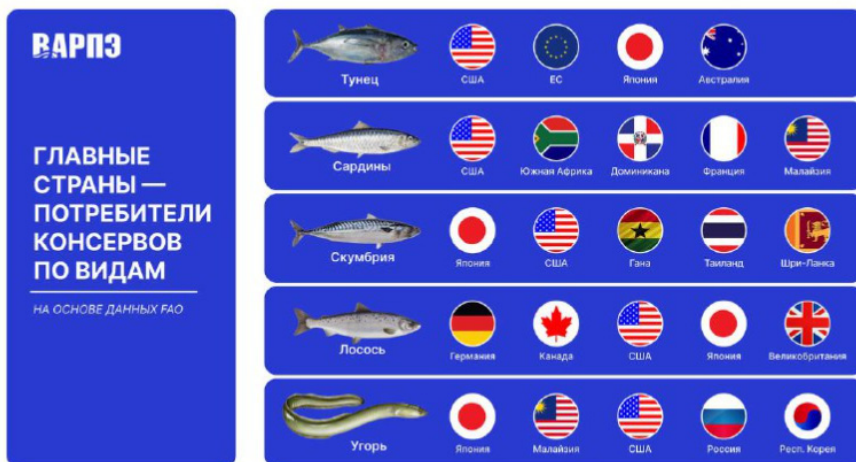
지난해 러시아는 1억 1,300만 달러 상당의 1만

7,700톤의 통조림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참치 통조림(36%)과 장어 통조림(33%)이다. 이러한 수생 생물자원은 러시아 어부들이 어획하지 않거나(장어) 혼획(참치 525톤)으로만 확보한다.

동시에 러시아 어부들은 4,210만 달러 상당의 제품 1만 4,600톤을 해외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주요 어종은 정어리, 고등어, 청어이다. 러시아 국내 시장은 러시아 어류 생산자들에게 여전히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총생산량 19만 3,200톤의 10% 미만이 수출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참치와 정어리, 고등어, 연어, 장어 통조림의 최대 수요국은 각각 미국, 미국, 일본, 독일, 일본이었다(그림 참조).

* 출처: Fishery.ru, 2024년 11월 12일자





타이유니온, 순이익 1억 1,000만 달러 증가

2030년까지 매출 79.5% 성장 목표

타이유니온 그룹은 2024년 1~3분기 동안 전년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37억 7,000만 바트(약 1억 1,003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타이유니온 측은 1~3분기 매출이 약 30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통조림 제품과 애완동물 제품의 매출은 각각 약 15억 3,000만 달러, 약 3억 7,242만 달러로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8.8%, 22.3% 증가한 수치이다.

냉동 제품의 1~3분기 매출은 8억 8,419만 달러로 각 부문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동기 매출에 비하면 13% 증가하였다.

상반기 타이유니온의 참치 통조림과 애완동물 식품은 자국과 세계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3분기 동안의 총매출액은 10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도 3분기 대비 2.7% 증가하였다. 참치 통조림 등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5억 2,309만 달러로 13.1%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전 지역, 특히 2023년 3분기에 환율 여파로 매출이 약세였던 중동에서의 수요 증가,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자체 브랜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미국에서 브랜드 통조림 참치와 수산물을 원하는 고객의 관심은 회사의 홍보 전략 덕분에 계속 증대되었다.

최근 태국 상무부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필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국의 중동행 참치 통조림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3분기 애완동물 제품 매출은 프리미엄 제품 제공 및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핵심 시장의 지속적인 수

요에 힘입어 전년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약 1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타이유니온은 또한 11월 11일, 6년 안에 매출을 79.5% 늘리기 위한 '2030 전략(Strategy 2030)'을 발표하였다.

타이유니온 사장 겸 CEO인 Thiraphong Chansiri는 11월 11일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가 2024년 예상 순매출 39억 달러를 2030년 70억 달러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이전 이익(EBITDA)'은 올해 약 4억 달러에서 6년 후 7억~8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매출, 매출총이익, EBITDA 성장을 위하여, 2030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웠다.

핵심 사업 활성화: 상온보관 제품, 냉장 제품, 동물 사료 등 주요 제품 범주에 집중하여 타이유니온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차기 성장 물결 가속화: 타이유니온은 2023년 이후에도 이익 창출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물 관리, 냉동 식품, 요리 제품 및 식재료 등의 빠르게 확장되는 범주에 집중한다.

신영역 개척: 양식 생태계와 대체 단백질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탐구하여 향후 타이유니온의 성장을 견인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여섯 가지 주요 요소는 조직 정렬 및 인재 이니셔티브 추진, 비용 관리, 생산 네트워크 최적화 및 전략적 소싱 추진, 디지털 역량 강화, 혁신 활용, 지속 가능성 상용화이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 중 하나인 프로젝트 소나(Project Sonar)는 2030 전략의 중요한 요소를 해결하여 장기 확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며, 프로젝트 테일윈드(Project Tailwind)는 애완동물 부문의 성장을 가속하는 데 중점을 둔다.

프로젝트 소나에는 최적의 효율성과 규모를 위하여, 조달 및 운영 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성장을 더욱 지원하는 한편 완전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유니온은 이를 통하여 2026년부터 연간 약 7,5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약 40%를 사업 강화 및 개선

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테일윈드는 인사이트 기반 상업 관행을 구현하는 동시에 역량을 구축하고 조달 및 생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부터 애완동물 사업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5천만 달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기적 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다. 타이유니온은 자회사인 아이테일 코퍼레이션은 인수합병을 통하여 2030년까지 매출을 3배인 15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유니온에 따르면 2023년 전략은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두 프로젝트 모두 시작되었으며, 한 예로는 네덜란드의 새로운 혁신 허브가 있다.

* 출처: 출처: Atuna, 2024년 11월 7일자, 12일자

태국, 2024년 3분기 원어 수입량 기록적 수준

약 65만 톤 수입...전년도 대비 약 40% 증가

올해 1~9월 동안 태국은 약 70만 톤에 가까운 냉동 다랑어류 원어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태국의 2024년 1~3분기(1~9월) 주요 상업용 다랑어류 원어 수입량은 65만 716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태국은 2024년 상반기에 이미 지난 5년간 상반기 최대 수입량인 41만 600톤을 수입하였다.

7~9월 동안 이러한 수입량 급증이 나타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낮은 어가이며, 둘째로는 가공업체가 중서부태평양 FAD 금어기 동안 원어를 사들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중서부태평양의 3분기 전채량은 2분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많은 편으로, 매달 7만 5,000톤에서 8만 톤이 전채되었고, 대부분이 방콕으로 향하였다.

1~3분기 수입량의 대부분은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나우루 등의 선단에서 어획된 가다랑어로, 총 55만 3,343톤이었다.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날개다랑어 수입량은 유지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은 몰디브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원어 수입을 늘렸다.

대만 선단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2만 2,860톤으로 공급국 중 가장 많았고, 평균 수입 가격은 전년도 동기 대비 20% 하락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마이크로네시아산과 한국산이었다. 이 두 국가로부터의 원어 수입량은 5만 872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만 2,080톤이나 증가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특히 3분기에 최대 물량 공급국이었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9일자



태국 아메리카 대륙행 통조림 수출, 27% 증가 미 대륙, PNG 등 수출 증가

태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참치 통조림 수출은 27%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1% 하락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총수출액은 5억 7,590만 달러이다.

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수출량은 12만 7,653톤으로, 작년 대비 27%나 증가하였다. 어가와 해상 운임이 하락하고 구매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에 많은 양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7만 4,087톤으로 1만 4,062톤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4,645달러의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물량은 타이유니온 산하의 Chicken of the Sea와 Bumble Bee 브

랜드로 향하였다.

캐나다로의 수출량은 2만 2,048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 가격은 톤당 4,733달러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 1~3분기 대비 5% 하락하였다.

남아메리카로의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 3분기까지 칠레와 페루로의 수출량은 각각 6%, 106% 증가하였다. 3년 전까지 중요한 시장이었던 아르헨티나로의 올해 1~3분기 수출량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하여 69%나 감소하였다. 카리브해 국가로의 통조림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13일자

태국 1~3분기 소규모 시장 통조림 수출 급증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9% 증가

2024년 3분기까지 태국 통조림 참치 수출은 주요 업체와 소규모 시장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태국은 2024년 1~3분기 동안 소규모 시장으로 통조림 7만 6,674톤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만 7,107톤 증가한 수치이다.

태국이 올해 3분기 동안 모든 시장에 수출한 통조림은 전년도 동기 대비 10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원어 가격과 해상 운임의 하락 및 중동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로의 1분기 참치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3분기에 다시 급증하였

다. 태국의 3분기 PNG행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26%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모든 소규모 시장 중 가장 낮은 톤당 1,672달러이다.

중동 국가로의 수출 증대는 상반기 실적에 이미 반영되었다.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행 자체 브랜드 상품 무역이 확대되면서 총 1만 4,043톤의 통조림 참치 수출량이 증대되었다.

태국과 가까운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두 배 이상인 1,810톤이지만, 수출 가격은 톤당 5,891달러라는 높은 수준이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11일자



참치업계 99.1% 보존 조치 준수

23개 업체 33개 보존 조치 준수율 상승 기록

ISS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참치 어업의 99.1%가 33가지 보존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은 연례 보존 조치 및 선박 등록 준수 보고서에 따라 23개 참여 기업이 33개 보존 조치를 99.1%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24년 6월과 10월 사이에 실시된 감사를 통하여 규정 준수 문제 해결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2024년 6월 규정 준수 보고서 이후 17개 회사가 33개 조치를 모두 완전히 충족하였다. 5곳은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각각 1건, 1곳은 2건으로 규정 준수율이 이전 보고서의 98.95%에서 상승한 99.1%를 기록하였다. 독립 감사기관인 MRAG Americas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여 어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참여 기업과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 절차는 보존 조치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책임감의 토대 위에 구축되며, 다른 업계 참여자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ISSF의 회장인 수잔 잭슨은 말하였다. “ISSF 참여 기업과 선박은 개별적으로 보존 조치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참치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사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23년 12월 31일 기준, 6월 업데이트와 변함없이 76%를 유지하고 있는 ISSF의 PVR(ProActive Vessel Register)에 등재된 선박의 준수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이는 RFMO 참여, 비업힘 FAD 사용, 선박 기반 FAD 관리 정책, 옵서버 커버리지 등 선박 활동에 초점을 맞춘 12가지 보존 조치의 준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ISSF가 관리하는 4개의 공개 선박 목록 중 하나인 PVR은 참치 어획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11월 보고서는 6월 감사에서 6개 업체에서 각각 1건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과 1개 업체에서 2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제품 추적성, RFMO에 대한 상세한 어획 데이터 제출, 상어 지느러미 혼획 방지 및 부수어획 완화 정책 등 ISSF의 보존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추적한다.

또한 업계는 부수어획 정책을 시행하는 연승어선이나 과학 기반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선망어선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과의 거래로 제한해야 한다. 독립 감사기관인 MRAG Americas에서 발행하는 개별 기업 준수 보고서에는 연중 부적합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 출처: Global Seafood, 2024년 11월 26일자



EU, 상반기 냉동 다랑어류 원어 수입 증가

황다랑어 원어 수요 증가 영향

2024년 상반기 EU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7만 5,162톤의 다랑어류 원어를 수입하였다. 수입된 다랑어 원어는 주로 필렛, 스테이크, 등심과 같은 냉동 및 신선 부문 제품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상온보관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수입량의 약 64%가 황다랑어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2024년 상반기 EU의 자숙 로인 수입량은 10만 726톤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非) EU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5만 9,065톤으로,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세이셸산의 수입량은 5% 증가한 9,706톤이며, 수입 비중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원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황다랑어 수입품은 대부분 스페인으로 향하였다.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산 수입량은 1분기

동안 감소하였고, 2분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파나마산의 수입량은 특히 2023년에 비하면 80% 이상 감소하였다.

한국산, 벨리즈산, 필리핀산의 수입량은 1분기에 많은 수준을 기록한 후 2분기에도 호조를 이어나갔다. 한국산과 벨리즈산 물량의 대부분은 황다랑어 원어이다. 한국 기업인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은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연승선을 보유 중이며, 신라교역은 인도양에서만 조업한다. 벨리즈 연승 선단은 대서양에서 조업한다.

EU 국가로부터의 수입 내역 중, 스페인산은 14% 감소한 9,679톤이며 프랑스산은 4,450톤으로 전년도 동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5일자

EU, 코트디부아르와 참치 어업 협정 연장

협정 기간 2028년까지

EU와 코트디부아르는 어업 협정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총 32척(선망 25척, 연승 7척)의 EU 선단이 코트디부아르 EEZ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선단은 매년 다랑어류 및 기타 수산물 6,100톤을 어획할 수 있으며, EU는 그 대가로 연간 74만 유로를 지급한다.

해당 협정에는 EU가 코트디부아르의 어업 부문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

하여 코트디부아르는 일자리 4만 개 직접 창출 및 40만 개 간접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선단에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연간 4~5만 톤의 참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가공 공장을 보유한 아비장항의 이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디부아르는 Scodi와 이탈리아 Airone 등의 통조림 가공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2일자



베트남, 참치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 전망

우대 대출, 무역 촉진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입지 강화

베트남의 참치 수출액은 2024년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대비 18% 증가하여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수출품 중 하나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0개월 동안 참치 수출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8억 2,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0월에만 약 9,3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참치 산업의 회복과 참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과 같은 전통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신흥 시장도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베트남의 참치 제품, 특히 통조림 제품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에는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이 포함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 관계를 통하여 중동 시장 진출의 문이 열렸다.

참치 수출 기업은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라인 개선을 위한 장비, 가공 및 보존 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무역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역 박람회에서 베트남 참치 제품을 선보이고 잠재 바이어와 연결하여 업계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처: Vietnamplus, 2024년 12월 2일자

오만 Simak, 첫 번째 참치 제품 출시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목적

오만 수산 개발이 소유한 국영 기업 Simak社가 새로운 상업용 참치 통조림 제품 라인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두쿰에 위치한 Simak의 통조림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것은 오만의 제54회 국경일 기념일에 맞춰 이루어졌다.

두쿰 경제특구에 위치한 이 새로운 시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연간 1억 개 이상의 캔을 생산하며, 이는 3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에 해당한다.

Simak은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오만의 비전 2040 목표에 따라 수자원 보존과 태양 에너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미 현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치 통조림 제품에 이어 몇 달 안에 고등어 통조림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Simak은 오만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들의 상품 판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2월 2일자



파푸아뉴기니 어업 현황

어업은 수익과 식량 안보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

파푸아뉴기니(PNG)의 어업 구역은 240만 km²에 달하며, 남태평양에서 가장 크다. PNG 어획량의 총 시장 가치는 참치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가치 변동이 발생하며 소규모 어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PNG의 수산물 수출은 양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10만 3천 톤 이상이 수출되었으나 2019년에는 두 배로 늘어나 5년간 19만 6천톤의 제품이 수출되었고, 총수출 가치는 13억 키나였다.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수산물 수출량의 80%는 냉동 참치가 주도하였고, 통조림 참치가 16%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통조림 참치는 EU 지역으로 수출되며, EU 면세 협정 및 나우루 협정 국가가 누리는 예코라

벨링 인증서에 따라 추가 가공된다.

참고로, 냉동 및 생물 바닷가재는 호주와 중국으로 수출된다.

PNG 해양자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가 어류를 대상으로 상업적 개발이 장려되고 있다. 상업어업은 여전히 수출 중심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상업어업 성장에 주요 투자 자본 유입을 구성한다.

2015년부터 정부는 수익 창출과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 등 수익 중심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정책과 산업 운영 환경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가 있다. 최근 공공 자금 관리 정규화법으로 정부는 어업을 정부의 수입 증대, 식량 안보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한다.

* 출처: 파푸아뉴기니 수산물 월간 보고, 2024년 11월 11일자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

어업을 위한 국제간 지역간 협력 강화 필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참치 생산국으로, 시장 생산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풍부한 참치 어군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덕분으로, 특히 주변 수역은 황다랑어와 참다랑어, 그리고 날개다랑어가 풍부하다.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생산업체인 태국 타이유니온은 전 세계에서 생선을 공급받지만, 인도네시아가 주요 수입처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

지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중 하나는 자원 고갈을 유발한 불법 어업 관행이다. 참치 어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6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체수 감소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IUU 어업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 참치 산업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치와 국제 및 지역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 출처: Chowhound, 2024년 11월 9일자



인도, 수산 부문 강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참치 클러스터 개발 발표

인도 정부는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에 참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수산업 부문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는 수산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역은 약 6만 km²의 EEZ를 자랑하며, 활용도가 낮은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는 6만톤으로 추정되는 참치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이 포함된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 인접하여 해상과 항공을 통한 효율적 무역이 가능하다.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의 청정 해역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행정 조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더욱 향상한다. 농림수산부는 이 이니셔티브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하며 전국적으로 수산업의 조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도 정부는 참치 조업 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투자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해당 부문 인프라와 역량 강화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주요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산업 부문을 변화시켜 왔다. 여기에는 PMMSY, 수산 및 양식 인프라 개발 기금(FIDF), 블루 레볼루션을 포함한다. 2015년부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3만 8,572억 루피가 투자되었다.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가 참치 클러스터로 지정됨에 따라 인도 전역의 수산업이 조직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러한 개발이 소득을 늘리고 해당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Goodreturns.in, 2024년 11월 6일자

세네갈 참치 어업, 4년간의 FIP 끝에 MSC 달성

지속 가능 어업으로의 전환을 의미

세네갈의 대서양 참치 어업은 Compagnie Africaine de Peche au Senegal社와 Grand Bleu社가 이 지역 최초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획득하였다.

4년간의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 끝에 획득한 이 인증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MSC 기준을 충족하는 참치 어장이 되었다. 2020년에 시작된 FIP는 세네갈의 국립 수산부 및 수산물 자문 업체인

Key Traceability社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인증 어업은 세네갈, 모리타니아, 카보베르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등 서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서양 동부의 가다랑어와 대서양 황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며, 자유 어획과 표류 어획 장치와 관련된 선망 어구를 모두 사용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18일자



참치 셀레늄, 참치 속 수은 완전히 상쇄

언론의 통조림 수은 관련 논란에 반박

참치의 수은 함유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 지난 10월 유럽 NGO인 Bloom과 Foodwatch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참치 통조림에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EU 규제 기관에 참치 통조림의 수은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 및 세계 언론은 "참치 통조림의 놀라운 수은 수치"와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장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였다. 전문가들은 "참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실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은을 상쇄하는 참치 셀레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블룸은 10월 말 보고서를 발표하며 EU 당국에 현재 수은 한계치인 1ppm(1mg/kg)을 0.3ppm(0.3mg/kg)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 규정은 다른 어류에도 적용된다. 블룸은 프랑스의 IPREM 연구소가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148개의 통조림을 분석했다고 말하였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0.3mg/kg의 수은 수치를 초과하였고, 일부는 매우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소금물에 담긴 Petit Navire 참치(프랑스제)는 3.9mg/kg이었다. Petit Navire는 즉시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우리는 우리의 식품안전규정이 신뢰성 있고, 최신 연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신 과학 증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반박하였다. 이들은 또한 식품 공급을 현

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은 규제 최대 수준을 1mg/kg 이하로 낮출 방법은 없다고 말하였다.

스페인통조림협회 Anfaco의 사무총장인 로베르토 알론소는 "참치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알론소 사무총장은 "언급된 보고서에서는 관련 실험실, 방법론의 승인 여부, 적용된 측정법 불확실성, 슈퍼마켓에서 얻은 샘플의 추적 가능성 및 비중, 그리고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에 필수적인 무작위 샘플링의 매개변수 등의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알론소 사무총장은 모집단별 샘플 수가 EU 규정(CE) 333/2007의 요구사항을 미충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칙은 식품의 수은 및 기타 원소에 대한 공식 통제량에 대한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알론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Anfaco - Cecopesca 실험실에서 8,000건 이상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 수은 함량이 0.29mg/kg으로 법정 한도보다 훨씬 낮아 스페인 통조림 산업의 양호한 제조 관행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알론소 사무총장은 EU 한도가 최대한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ALARA(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 원칙에 근거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수준은 대상 인구의 평균 식단, 국가 섭취 권장 사항 및 TWI(주간섭취허용량, 해로운 영향의 위험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또는 음료수 속 유해 물질의 단위 무게당 양의 추정치)의 면밀한 모니터



링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수은의 경우 TWI는 1주일에 1인당 체중 1kg당 1.3mg으로 설정되며, 이는 참치를 포함한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단에 도달하는 안전한 한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EU 어선단을 대표하는 단체인 Europeche의 대변인은 Bloom 보고서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대변인은 또한 연구 수치가 생참치살이 아닌 말린 참치 기준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셀레늄의 중요성〉

서태평양지역수산관리위원회(이하, WPRFMC)는 11월 8일 "어류 속 수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WPRFMC는 구체적으로 Bloom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언론 보도는 수은 때문에 참치를 먹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부당하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WPRFMC의 성명은 언론의 보도가 참치의 셀레늄 함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셀레늄은 신체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미네랄로, 노화, 오염 및 생활 습관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이다.

WPRFMC는 성명을 통하여 "해양 어류, 특히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 비타민과 같이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을 제공한다. 특히 셀레늄은 수은 독성을 상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호놀룰루의 수산물 안전 전문가인 존 카네코(John Kaneko)의 기사를 강조하였다. 카네코는 '안개 속을 들여다보기: 참치, 수은, 건강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하와이 어종과 수은-셀레늄 배합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황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등 4가지 주요 참치 종이 포함되었다. 카네코는 "식품이 수은의 독성 효과를 촉진하거나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셀레늄과 수은의 비율이다."라고 말하였다.

카네코는 자신의 기사에서 셀레늄이 수은에 대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두 원소가 만나면 너무 강하게 결합해서 어느 것도 생물학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일대일 분자 결합으로 인하여 식단에서 셀레늄과 수은의 비율이 중요해진다. 셀레늄보다 수은이 많은 음식은 수은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셀레늄이 더 많은 음식(참치)은 항산화 및 기타 필수 기능을 유지한다."

WPRFMC는 "공식적으로 참치 소비와 관련된 수은 중독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계속 섭취하도록 권장하며, 대중에게 참치와 다른 해양 어류의 증거 기반 영양 이점 및 건강상의 이점을 고려할 것을 독려한다"라고 밝혔다.

Anfaco는 또한 Bloom 보고서가 전 세계 과학 출판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셀레늄-수은 균형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식물성 공급원보다 참치와 같은 해양 공급원은 오메가-3 지방산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가공 산업을 대표하는 통조림식품산업연합은 참치 통조림 섭취가 위험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프랑스와 유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라고 말하였다. 인디펜던트지는 참치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생선을 섭취하도록 하는 권장 사항의 일부"라고 보도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12일자



글로벌 수요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가격 상승

중국 시장이 주요 원동력

최근 Expana 가격 평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산 냉동 오징어 튜브와 링의 FOB(중국) 가격은 약 30% 상승하였다. 이는 다른 오징어 어종의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산 오징어(*Illex argentinus*)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오징어 어획 시즌은 2024년 8월에 종료된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획량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2월에 5만 224.8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총 오징어 어획량은 15만 3,785.8톤으로 2023년 대비 0.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TT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량은 14만 2,993톤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하였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며, 한국(17%)과 싱가포르(1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럽 시장(EU 및 영국 포함)으로의 수출은 13%였으며, 스페인이 주요 수출국으로 유럽 시장 수출의 51%를 차지하여 전 세계 수출의 6.8%에 해당하였다. 2위는 이탈리아로 유럽 시장 수출의 31%를 차지하였다. 2024년 아르헨티나의 유럽 오징어 수출은 2023년에 비해 88% 증가하였다.

2024년 8월 이후 아르헨티나 냉동 오징어 튜브와

링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작은 사이즈의 오징어 콘 가격은 전년 대비 38.96% 상승하였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다른 오징어 어종의 공급 부족이다.

로리고 오징어는 포클랜드 제도의 수산 자원 보호로 인해 8월에 시즌이 일찍 종료되었다.

페루 오징어(홍볼트 오징어)는 엘니뇨-남방진동(ENSO) 현상이 엘니뇨에서 약한 라니냐로 전환되는 동안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오징어의 글로벌 가격을 상승시켰다. 또한 유럽 시장의 오징어 가격도 상승 추세에 있다. 오징어 튜브 및 링과 같은 원자재 및 가공품 가격은 운송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중국에서 유럽까지의 운임은 전월 대비 21.17%, 전분기 대비 44.06% 하락).

아르헨티나 오징어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오징어 어종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및 유럽 시장의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아르헨티나 오징어 수출은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역학 관계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163.com, 2024년 11월 18일자



남미 오징어류, 고가 행진 지속

어획량 부족 등 영향

남미에서 어획되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 오징어)의 어획량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에서는 장기간 계속된 불어로 인하여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은 “어획량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공업자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어획량 부족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엔저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페루의 가공 공장에서는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자 가리비나 만새기 등 오징어 외의 원료를 가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징어 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 선단이 어획하는 소형 빨강오징어(적도오징어)의 산지 가격은

10월 중순경까지 톤당 2만 3,500위안의 고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월 하순에는 가격이 2만 1,000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무역회사 소식통은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말하였다. 어획량이 약 20척이 1일당 3~4톤, 많은 경우에는 20톤을 어획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회사 소식통은 “현재, 적도상으로 어선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1~9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 오징어, 남미 빨강오징어 등 포함)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6만 8,585톤이며, 평균 단가는 6.8% 상승한 kg당 613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1월 14일자

러, 2025년 살오징어 어획 권고량 29% 삭감

日 수역 경계왕래성 자원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청은 2025년 러시아 자국 수역 200해리 내 살오징어의 어획 권고량을 발표하였다.

일본 수역과 러시아 수역 간의 ‘경계왕래성 자원’이 될 수 있는 해당 살오징어 자원의 어획 권고량은 남쿠릴 1만 1,253톤, 북쿠릴 900톤으로 2024년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가을 발생 계군인 동해 수역 중 연해주 수역은 2024년 대비 40% 감소한 1만 5,515톤, 서사할린 수역은 37% 감소한 5,000

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태평양과 동해 수역의 합계는 29% 감소한 3만 2,668톤이 되었다.

러시아는 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징어를 TAC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획 권고로 관리하고 있다. 2021~2022년에는 태평양수역과 동해수역을 합쳐 6만 톤대 쿼터를, 2023년에는 7만 톤대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2년 만에 절반 이하의 양으로 감소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1월 22일자



포클랜드 오징어 할당량 대폭 감소 우려

어획쿼터, 선박안전 규제, 중국 물량 공세에 따른 대응 시급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고의 25%를 공급하는 포클랜드 원양어업이 어선 노화와 중국의 물량 공세에 위기에 처하였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포클랜드 어장을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3~5년 이내에 만들어질 조짐을 구체화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수산개발연구원(KMI)이 발표한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출범하면 현지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 ITQ제도(어획 할당제, 어업 쿼터 거래 허용제)와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도입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조업 중인 오징어 어선 40척을 기준으로 어획 물량을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무려 10배가 넘는 450여 척이 조업 중이어서 압도적인 물량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선들은 선령이 초고령 선박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미달하

리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선박을 투입하여 어선수를 늘려 원양업계 경쟁력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신규 어선이 대거 투입되면 국내에 반입되는 오징어 물량이 급증하여 판매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기존 업체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존 노후선에 의존하는 업체로서 포클랜드 어장에 최신 장비를 갖춘 신규어선이 대거 투입되면 어장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국익 차원에서 신규 조선사업에 기존 업체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려면 다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신규 조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만선(3분기호), 2024년 11월 6일자

中,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양어업 지속 중국 소유나 합작 형태 등으로 해당 국가의 수산 자원 파괴

중국이 자국 선박을 전 세계 국가 법인 소속으로 허위 등록시켜 현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주요 어장에서 “씩쓸이식 조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GO 단체에 따르면 중국이 이러한 형태로 가장 활발히 진출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였다.

중국 선단 65척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달고 조업하고 있는데, 이 선박이 아르헨티나 전체 오징어 조업선의 90%에 달하였다.

현지 언론에 공개된 선원 명부를 검토한 결과 아르헨티나 수역 조업 어선 근로자의 1/4이 중국 국적자이다.

이외에도 가나 70척, 세네갈 13척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크로네시아 16척 등 태평양 국가들 이란 11척 등 중동 지역까지 중국의 조업선이 진출하여 해당 국가의 국적으로 수산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 출처: 만선(3분기호), 2024년 11월 6일자



트럼프 재선으로 러시아 제재 철회 가능성 대두

의회 통과된 법안이 아닌 행정명령은 취소하기 쉬워

백악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변화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과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수산물 및 기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O 14068)에 서명하였다. 그 후 2023년 12월, 바이든은 다른 나라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명태, 연어, 대구, 게를 포함하도록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또 다른 EO(14114)에 서명하였다.

금지 조치 이전 러시아는 미국에서 8번째 수산물 공급국으로, 2021년에 12억 달러 상당의 4만 8,867톤을 수입하여 2020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2021년 러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약 80개 품목이었지만, 가장 가치가 높은 품목은 냉동 대게 1만 8,799톤(5억 9,200만 달러), 냉동 붉은 킹 크랩 8,486톤(4억 1,970만 달러)에 달하였다.

EO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취소하기 쉽고, 트럼프는 미국이 러시아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자기 영향력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 조치로 2014년부터 미국산 명태 수입을 차단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금지 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경쟁국 생산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 온 미국 명태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알래스카의 두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와 덴 설리반(모두 공화당 소속)이 반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들은 또한 수년간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싸워왔으며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금지 조치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왔다.

국립수산연구소(NFI)는 트럼프가 대선 이후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업계에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야 한다며 바이든의 EO 확대에 반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7일자



2025년 A시즌 명태 연육 가격 상승 예상

세계 연육 재고 감소 및 전략 다각화 등 영향

RFC의 사벨리 카르푸힌 CEO는 세계적 연육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러시아산 명태 연육이 2025년 A시즌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된 중국 수산물 엑스포에서, 카르푸힌 CEO는 A등급 연육 가격은 중국행 CFR(비용, 운임 포함 가격) 기준으로 kg당 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A등급 연육의 2024년 B시즌 가격은 kg당 2.50~2.60달러였다.

카르푸힌은 RFC가 2025년 A시즌 명태 연육 계약을 kg당 3달러로 체결하면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가격은) 중국행 CFR 기준으로 kg당 3.00달러에 가깝다. 대형 고객사는 그보다 낮은 kg당 약 2.90달러, 소규모 고객사는 kg당 3.00달러를 넘는 수준이다.”

카르푸힌은 지난 2년 동안 열대 연육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 재고가 고갈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였다. 카르푸힌은 “시장에서는 이미 지역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의 2024년 연육 생산량은 당초 8만 톤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베링해의 어업 상황으로 인하여 약 7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만 톤은 여전히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이다. RFC가 지난 10월 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8년 러시아의 연간 연육 생산량 예상치는 16만 톤 이상이다.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알래스카산 명태 연육 생산량은 17만 4,078톤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하였다.

카르푸힌은 “명태 연육의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최고 등급이 1kg당 3달러 수준인 것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하였다.

카르푸힌은 “명목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육 가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시장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급등하든 급락하든 급격한 움직임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시장 다각화의 경우, 카르푸힌은 거래량이 다양한 지역에 널리 분산되어 있고, 주요 시장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으며, 각 지역이 전체 거래량에서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8월까지 일본은 러시아에서 1만 613톤의 연육을 수입하였다. 이는 2023년 전체 수입량인 1만 2,397톤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2024년 일본의 평균 연육 수입 가격은 톤당 2,164달러로, 2023년의 2,505달러보다 하락하였다.

카르푸힌은 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이 전체 규모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하였다.

카르푸힌은 특히 현재 수입 할당량 제한이 존재하



는 일본에 비하면 내년에 다른 시장에서 눈에 띄는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산 명태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늘리지 않으면 다른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물량을 판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의 자회사인 씨푸드커넥션에서는 지난 10월에 일본 정부가 러시아산 명태 연육 생산량 급증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입 할당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RFC는 2025년에만 5만~6만 톤의 명태 연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반면 PBO(가시 제거) 필렛 블록 생산은 3만 톤에서 3만 5,000톤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카르푸힌은 3만 톤의 생산량이 유

럽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며 “대략 절반은 유럽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와 아시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였다.

카르푸힌은 PBO 필렛 가격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1차 냉동(single-frozen, 어획 후 1회 냉동한 제품) 블록의 유럽 계약에 달렸다고 지적하였다.

RFC는 또한 내년에 한국으로 명태 원어 2~3만 톤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카르푸힌은 “한국 시장에서의 명태 원어 수요는 감소 추세이나, 제품의 질과 자국 식단의 전통을 중시하는 안정적인 충성 고객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25일자

러, 460만 톤 이상 어획

명태 184만 톤 어획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여 톤 증가

러연방 조업모니터링센터(CFMC)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획량이 458만 2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수역: 약 350만 톤(349만 5,700톤)

명태 184만 8천 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 4,500톤 증가),

대구 10만 900톤, 청어 39만 톤(지난해 대비 3만 8,600톤 증가), 가자미 5만 8,800톤, 정어리 53만 3,500톤(지난해 대비 4만 1,800톤 증가)

- 북부 수역: 41만 6,500톤

대구 21만 600톤, 해덕 5만 8,000톤, 열빙어 5만 1,700톤(지난해 대비 2만 8,600톤 증가)

- 서부 수역: 6만 8,200톤, 유럽 청어 3만 5,300톤, 발트해 청어 2만 2,300톤

- 아조프-흑해 수역: 3만 900톤

멸치 1만 1,100톤(지난해 대비 1,800톤 증가)

- 볼가-카스피 수역: 6만 9,400톤

유럽 청어 2만 2,100톤

- 원양수역(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원양어선의 조업량은 45만 9,5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11월 30일 현재, 1만 5,665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26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 어획물은 명태(3,256톤), 연어(2,823톤), 청어(714톤), 대구(172톤) 등 신선한 냉동 어획물이다.

신선한 어획 제품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 우선하여 공급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2월 3일자



러시아 명태,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

미국 생산량 30% 앞질러

러연방 농업부는 베링해에서 명태 어업 할당량을 결정하고 미국의 어획량 추정치가 아닌 러연방수산 과학연구소(VNIRO)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수행한다. 주요 원칙은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남획 방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VNIRO는 베링해의 명태 자원량을 높게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허용 어획량을 늘려 3년 동안 1.7배 증가한 70만 5,000톤까지 늘렸다. 올해는 실제 어획량이 더 적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상황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링해만이 유일한 어장이 아닌, 오호츠크해, 동해, 축치해에서도 명태를 어획한다. 지난해 러시아 어부들은 총 193만 톤의 명태를 어획하여,

러시아는 명태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올해도 미국을 약 30% 앞지르며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량은 이미 러시아 어민의 경제적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제재를 통하여 미국 어민의 손실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미국 소비자 가격만 상승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며 여전히 세계 어업 강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수산업에 대비한 합리적 접근이다.

또한 1인당 평균 14kg의 수산물 소비량을 명태는 충분히 제공하며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1월 30일자

러시아 H&G 명태 가격, 높은 수준 유지

톤당 1,350달러

소식통에 따르면 기준 크기인 25cm 이상 크기의 냉동 H&G(머리, 내장 제거) 명태의 가격은 중국 가공 허브인 다롄, 칭다오까지 CFR(운임, 비용 포함) 기준으로 톤당 1,350달러이다.

러시아 H&G 명태 가격은 올해 30주차에 중국에서 톤당 1,010달러였으나 이후 급등하였고, 올해 42주차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인 중국 가공업체 임원은 “가격이 현재는 이 수준이지만, 내년 중국 춘절을 앞두고 사재기

심리로 인하여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말에 H&G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공장에서 춘절과 이후 사용할 원어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유럽 무역업체 관계자는 오호츠크해 어획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H&G 명태 가격이 1월 말까지 톤당 1,150~1,2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21일자



美 명태 ABC, 알래스카만 감소·베링해 증가 12월 회의에서 TAC 결정

미국 알래스카 명태 자원은 동베링해에서 유지되고 알래스카만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 중인 회의에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 소속 저서어류 계획팀 과학자들이 검토 중인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하, ABC) 수치에 근거한 것이다. ABC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어업의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설정에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이다.

연구진은 2025년 알래스카만 ABC를 18만 1,022톤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2024년 ABC(23만 2,543톤) 대비 22% 감소한 수치이다.

2024년 알래스카만 TAC는 19만 5,720톤으로, 2023년도 대비 25% 증가하였다.

2025년 동베링해 명태 ABC는 241만 7,000톤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4년도 ABC(231만 3,000톤) 대비 4.5%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동베링해 명태 TAC는 130만 톤이며, 알류산 열도 TAC는 1만 9,000톤이었다.

저서어류계획팀의 조사 내용은 과학경제 연구원으로 구성된 과학통계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과학자 및 업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검토 예정이다. 해당 자문위원회

는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 12월 회의에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TAC 권고안을 제출한다.

동베링해 전체 TAC는 200만 톤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두 수역의 2026년 ABC는 성숙한 개체군의 어획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OAA 어업 통계학자 콜 모나한은 "(2026년 ABC는) 새로운 데이터와 2025년 어획량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저서어획량을 추적하는 맥킨리 리서치의 보고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으로 명태 약 140만 톤이 어획되었다. 이는 미국 명태 TAC의 91%에 해당한다.

베링해와 알류산 열도에서는 TAC의 95%가 어획된 반면, 알래스카 만에서는 왕연어 혼획 사건으로 어업이 조기에 중단되면서 TAC의 63%만이 어획되었다.

연육은 명태 생산량의 34%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인 40%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명태 필렛의 시장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15일자



2024년 알래스카 명태 연육 생산 13% 감소

약 17만 톤...수요 약세 원인

2024년 알래스카 명태 어기는 11월 1일에 공식 종료되었다. 연육 총생산량은 17만 4,078톤으로, 전년도 대비 12.6% 감소하였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해양수산서비스(이하, NMFS)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링해에서의 연육 생산량은 11% 감소한 16만 5,049톤이다. 알래스카만에서의 생산량은 40%나 급감한 5,429톤이다.

A시즌 동안 베링해에서의 생산량은 8% 감소한 7만 4,238톤이었고, 알래스카만에서의 생산량은 12% 감소한 496톤이었다.

B시즌은 일반적으로 연육 생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나 올해는 오히려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베링해에서의 생산량은 14% 감소하여 9만 811톤에 그쳤고, 알래스카만에서는 65% 감소하여 1,659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올해 들어 가공업체가 연육보다 PBO(가시 제거) 필렛 생산을 우선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 연육 가격이 급락하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수요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다.

필렛 제품 조달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조치 또한 연육 생산이 아닌 PBO 필렛 생산을 촉진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산 명태 필렛 수출 가격은

2022년 수준보다 훨씬 낮지만, 폭락을 기록한 2023년에 비하면 상승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시장의 연육 가격은 올해 A시즌과 B시즌에 모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육 가격은 일본 엔화로 정해지기 때문에, 알래스카 생산자들도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11월 상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북태평양어업관리협의회(이하, NPFMC) 저서어류양식팀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명태 연육의 첫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4% 하락한 kg당 평균 1.06달러로 추산된다.

필렛 가격은 11% 하락하여 추정 평균 kg당 1.77달러가 되었고, H&G(머리, 내장 제거) 제품은 13% 하락하여 kg당 평균 0.47달러가 되었다. 유일한 예외는 명란으로, 8% 상승하여 kg당 3.33달러를 기록하였다.

제품 가치의 감소는 명태의 선박 출고 가격에도 반영되어, 명태 가격은 3% 하락한 kg당 평균 0.15달러를 기록하였다.

명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2만 782톤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2만 톤을 돌파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19일자



러, 채산성 맞지 않아...“투자쿼터 원인”

투자쿼터제도로 인하여 부담 발생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는 현재 40% 이상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2019년에 도입한 투자쿼터제도로 인한 “강제적 투자”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쿼터제도는 자국에서 어선이나 가공 시설 등을 정비한 어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어선의 고도화나 고차가공화의 추진, 국내 투자증대에 따른 수산업의 성장산업화 등을 목표로 도입하였다.

반면, 어획 쿼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 투자”가 어업자의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등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회사의 여력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시 후 연간 투자액은 개시 전의 4배로 증가하여, 2024년 말까지의 누계는 4,583억 루블에 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8월 어업자의 이익은 60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러시아 어업자의 40% 이상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태이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태인 어업자의 비율은 2017년에 1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어업계 단체인 전러시아 어업자수산물수출자협회는 규제 부담 경감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12월에 개최되는 ‘러시아 산업기업가동맹(한국의 한경련과 비슷한 성격)’의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1월 25일자

러, 디지털화로 어업 허가를 더 빨리 취득

극동 수역 78%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급

2024년 1월~10월 어업 허가의 78%가 전자 신청서를 기반으로 발급되었다고 러연방수산청 연해주 지부는 보고하였다. 지부에 따르면 디지털화로 인해 어업 허가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2022년부터 어부들은 전자 형식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어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어업 허가가 허용된다.

전자화로 인하여 문서를 취득 프로세스가 더 편

리하고 빠르며 효율적이라고 러연방수산청 연해주 지부 언론 서비스는 알렸다.

1~10월 러연방수산청 연해주 지부는 극동 수역에서 1,773건의 어업 허가를 발급하였다. 이중 77.6%인 1,376건의 허가는 정부 서비스 포털로 접수된 전자 신청서를 기반으로 발급되었다. 나머지 신청서는 종이 형태로 접수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1월 11일자



러 하바롭스크 주, 베링해의 명태 어획 평가

태풍 이후 어획량 크게 감소하여 조업 수역 이동

11월 5일까지 하바롭스크 주 기업은 베링해에서 4만 9,000톤의 명태를 어획하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는 7만 7,000톤을 어획하였다.

하바롭스크의 모든 주요 기업은 적시에 어선을 출항하였다. 이미 5월 말에 Vostokrybprom社, Sofko社 및 Tralfлот社의 선박은 베링해 동부 지역에서 명태 조업을 개시하였다. 6~7월에는 Pollux社, Vodoley社 등 그외 회사 선박이 조업에 합류하였다. 어업 상황은 양호하여 선박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80~100톤에 달하였다. 따라서 7월 말까지 총 어획량은 3만 3천 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이 지역 명태 쿼터의 40%를 소진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강력한 태풍 이후 명태 어획량은 선박당 15~20톤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극동 수

역의 조업선은 베링해를 떠나 다른 수역에서 정어리,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다른 어족을 잡기 위하여 조업수역을 이동하였다. 11월 5일 현재 베링해에서 하바롭스크 어부들의 명태 어획량은 4만 9,000톤으로 연간 할당량의 57%를 소진하였다. 작년에 이 수역에서의 어업은 더 성공적이었으며 어부들은 7만 7,000톤을 어획하였다.

Vostokrybprom社의 조업선 일부는 북오호츠크해 수역에서 명태와 청어 조업을 지속하였다. 쿼터 잔량은 6천 톤 정도로 쿼터 소진 완료는 이상 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오호츠크해의 명태 생산량은 13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1월 8일자

러, 6년 내 천여 척의 선박 고객 인도 예정

국가적 해상능력 강화

러시아 조선소는 6년 안에 약 1,000척의 선박을 고객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중 640척의 건조가 국가 프로젝트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안톤 알리하노프는 연방 의회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말하였다.

“6년 동안 업계는 다양한 목적의 천 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 계획 중이며 이중 약 640척이 국가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형 내

빙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고 러시아 모든 수역의 민간 주문을 수행하는 조선소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하여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운송 분야의 건조는 국가 프로젝트 “운송 모빌리티의 산업 지원”의 틀 내에서 실현 예정이다.

알리하노프는 해상 및 하천 선박의 리모델링 및 건조 작업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RIA Novosti, 2024년 11월 20일자



日 니스이社,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엔화 약세 및 가공제품 확대 영향

일본 수산 대기업 니스이는 가공 제품 확대 및 엔화 약세에 힘입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니스이의 상반기 총매출액은 4,406억 엔(미화 기준 29억 달러)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 니스이는 자국 수산물 사업의 회복과 국내외 가공 식품의 견고한 성과 외에도 엔화 약세로 인하여 매출이 237억 엔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 기록인 172억 엔(1억 1,200만 달러)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다. 니스이의 상반기 해외 매출액은 9% 증가한 1,792억 엔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가공 식품 매출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해외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107% 급증한 31억 엔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의 자회사인 Gorton's Seafood와 프랑스의 자회사인 Cite Marine에서 코팅된 흰살 생선 사업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다.

북미 매출은 자회사인 Gorton's와 UniSea(터치만에 위치한 니스이의 주요 알래스카 명태 가공 시설)의 매출이 더욱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11% 증가하여 978억 엔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북미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후 약간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억 엔을 기록하였다. 주로 Gorton's 제품인 식제품 부문의 영업이익은 9% 상승하여 600억 엔을 기록하였다.

니스이는 "북미에서 우리는 추가적 명태 자원 확보, 필렛 생산 증대, 인력 최적화 노력을 강화하여 비용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 중이다."라고 밝혔다.

6월 10일 투자자 회의에서 니스이의 하마다 신고 CEO는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UniSea에 마진율이 높은 필렛 가공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니스이는 가공 수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새 우 가공품과 '에어 프라이드' 제품군과 같은 건강 중심 품목의 가정용 시장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전자상거래 및 멤버십 기반 매장과 같은 새로운 채널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품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업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흰살생선 제품과 시오마이(일본식 덩섬) 제품 판매 증대가 목표이다.

니스이의 유럽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 41% 성장한 848억 엔, 48억 엔을 기록하였다.

니스이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수산물 가공업체 Maxima Seafood를 인수하면서 유럽에서의 강력한 성과를 뒷받침하였다.

한 관계자는 덴마크 신선 수산물 가공업체 Dengso가 2023년에 니스이 유럽 거래 자회사 Nordic Seafoods에 합병된 것도 상반기 기록적인 실적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니스이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산하 기업 Cite Marine이 운영하는 유럽 가공 식품 사업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매출 확대의 이유는 흰살 생선 가격 저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니스이는 자회사인 Salmones Antartica를 통하여 연어와 송어 양식 사업을 운영하는 남미 지역에



서 16% 증가한 207억 엔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작년의 마이너스 3억 엔에서 마이너스 7억 엔으로 하락하였다.

일본 자국에서 니스이의 실적은 엇갈렸다. 양식업 수익 성장이 어업 부문의 감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어업 부문에서는 가다랑어 어획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해양 상황으로 인하여 고등어와 정어리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양식업 부문에서는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해수 온도 상승과 사료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영향을 받았다.

참치 가격은 수입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방어 매출은 감소하였다. 이 회사는 은연어가 조기에 어획되어 어체가 작아졌고 그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니스이는 2030년까지 1만 5,000톤의 방어를 양식하고 9,000톤의 은연어를 어획하는 것이 목표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6일자

러시아 조선소, 흰살생선용 트롤어선 추가 진수 RFC가 쿼터 대가로 발주한 10척의 선박 중 6번째

러시아 어업 회사(RFC)가 발주한 10척의 슈퍼 트롤선 중 6번째 선박이 금요일(11.8)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수되었으며, 이는 어획 쿼터에 대한 대가로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이 거대 기업의 최신 투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의 세스타코프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도시의 해군 조선소에서 메카닉 슈체르바코프의 진수식이 열렸다고 이 기관은 성명에서 밝혔다.

세스타코프는 진수식에서 “차세대 선박은 최대의 안전,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 선원들의 근무 및 휴식 환경 개선을 보장한다.”라고 성명서에서 말하였다.

RFC는 정부가 후원하는 선단 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명태 및 청어 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 국내 조선소에서 10척의 신규 선박 건조에 최소 800억 루블(8억 1,9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앞서 건조된 4척의 선박은 이미 러시아 극동 지

역에서 운항 중이다. 다섯 번째 선박인 카피탄 유낙은 9월에 진수되었다.

이 트롤선은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108미터이며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간 어획량이 6만 톤 이상이며 다양한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선상 공장은 연간 1만 5,000톤 이상의 필렛, 민스 및 연육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연간 5,000톤 이상의 어분과 어유, 일부 명란을 생산할 수 있다.

메카닉 슈체르바코프의 냉동 화물 적재 용량은 2,375㎡이며 하루에 최대 100톤의 제품을 냉동할 수 있다. 화물창의 용량은 5,620㎡이다.

“우리는 6번째 선박에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RFC의 CEO인 사벨리 카르푸힌은 성명서에서 말하였다. “2025년 초에 7번째와 8번째 선박 두 척이 곧 추가 건조 예정이다.”

* 출처: RIA Novosti, 2024년 11월 20일자



日 콩치 11월 말 시점 어획량, 전년 대비 61% 증가 5년 전 수준 거의 회복

일본 전국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에 따르면, 2024년 어기 11월 말 시점 콩치 전국 어획량 누계는 전년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만 8,681톤이다. 이는 콩치 어획량 부진의 첫해인 2019년 어기(4만 517톤) 수준까지 거의 회복된 수치이다.

평균 단가는 10kg당 4,647엔(12% 상승)으로, 초반부터 종반까지 고가 추세가 견고하게 이어졌다. 어획 금액은 179억 7,498만 2,000엔(80% 증가)으로, 2018년도 어기 최종 수치(225억 2,515만 8,000엔) 이후 150억 엔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이 중심인 대형선의 어획이 좋은 반면, 근해의 오토츠크 어장이 올해는 형성되지 않고, 일본 수역도 어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소형선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다만, 11월을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서 돌이켜 보면, 상순까지는 5,000톤 이상을 어획한 반면, 중순부터는 급격히 감소 추세였다. 근해 어장에서 하루 500톤이 어획된 1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1척당 1톤 미만으로 어획 추세가 감소하면서, 12월 3일 시점으로 후쿠시마 이남 선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붕수망 어선이 조업을 일단락하는 분위기이다. 이로 인하여 올해 일본의 콩치 어획량이 4만 톤을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일본 콩치 어협 측은 “회복의 조짐이 2년 연속으로 보였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년 이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북태평양 어업위원회(NPFC)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국제 규

제 강화로 인하여 타국 선박의 선점이 억제되면서, 일본 선단의 어획 회복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일본 전국 주요 항구에서의 콩치 월간 어획량은 10월에 전년도 동월 대비 2배인 1만 6,292톤이었으나, 11월은 어획이 둔화하면서, 28일 시점으로 9,778톤(전년도 동월 대비 26% 증가)을 기록하였다.

쿠로시오 해류가 산리쿠(三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 연안까지 북상하고,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연안에 난수괴가 있어 산리쿠 수역으로의 내유가 좋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밤까지 하나사키 남남동 190~230해리에서 어장이 계속 형성되었다. 11월 중순에는 이와테현 미야코로부터 이와테현 가마이시까지 20~120해리의 산리쿠 수역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작년 10월 하순에 어장이 생겼던 오토츠크해는 어군을 발견한 어선은 있었으나, 실제 어획은 없었다.

11월 어획물의 어체 크기는 길이 26~30cm, 무게 80~120g이 대부분이었다. 산리쿠 수역에서 어장이 생긴 11월 중순 이후로 무게는 변하지 않았고, 길이는 27~30cm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의 정도가 비교적 좋은 개체가 있었던 반면, 어체의 살이 빠진 것도 관측되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2월 5일
미나토신문, 2024년 12월 2일자



꽂치 어획량, 회복 중이나 아직 갈 길 멀어

국제적 자원 관리 진전에 기대

일본 전국꽂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에 따르면 10월 말 시점 일본 전국 꽂치 어획량은 2만 9,344톤이다. 2020년 이후 매년 같은 시기 어획량이 1만 6,000톤 미만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32년 동안 연간 어획량이 20만 톤 아래로 떨어진 것은 단 4개년뿐이다. 2017년에 처음으로 10만 톤 아래로 감소한 이후,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연간 어획량은 5만 톤 미만이다. 올해의 상황은 연간 어획량이 2만 톤 전후였던 2020년대 대비 소폭 회복에 불과하므로, 풍어라는 일부 보도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꽂치 자원량은 지금도 적은 상황이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등의 북태평양의 꽂치 자원 평가에 따르면, 다수 국가의 조업이 증가한 2007년 이후 남획되는 연도가 많아, 2009년 이후의 번식 가능 개체수는 'MSY 수준(어획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량) 미만'을 기록하였다. 동 기구 담당자는 "올해 어기 전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면, 자원량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획에는 어장 형성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수온이 높은 탓에 어군이 남하하지 못하고 어장에 머무르고 있는 등의 상황이 원인일 수도 있기에, 자원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기구 담당자는 말하였다.

어협 측은 올해에 대형 어선의 출어일을 앞당겼기 때문에, 양륙 초기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이상으로 보

다 과열되었다고 말하였다. 어협 측은 "11월 5일 정도부터 어장을 찾을 수 없다. (꽂치의) 내유가 어기 도중에 끊어진다고 하는 예보대로, 향후도 이러한 어획량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협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북태평양어업위원회(이하, NPFC)에서의 자원 관리를 지목하였다. 공해를 중심으로 꽂치의 TAC 제한이 시작되어 "올해는 9월에 중국, 10월에 대만이 어획 한도 달성으로 인하여 어장에서 철수하였다. 자원의 회복과 함께, 공해에서 내유 자원이 미리 어획되는 현상이 방지되면서, 이에 따른 일본에의 꽂치 내유량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어협 측은 말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원 평가에 의하면, 격감한 자원에 비해 NPFC의 TAC가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사실상 과잉 어획이 공인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한편, 올해 NPFC는 과학적 자료를 근거 삼아 매년 전년 대비 $\pm 10\%$ 이내의 증감폭으로 꽂치 TAC를 수정해 가는 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실태에 입각한 자원 관리와 어획의 안정화가 쉬워지게 되었다.

어협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악화한 어체 사이즈나 어체의 기름진 정도, 어장 위치 등도 올해 들어 아주 조금이지만 개선되었다. 10월 말까지의 어획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지만 단가는 1%의 저하에 머무르고 있어 매출이 개선되었다.

어협은 "내년 어획 한도는 10% 감소하겠지만, NPFC의 체계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국제적인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아직 풍어는 아니지만, 바닥은 벗어나고 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1월 11일자



일-러 간 어업 협상, 합의 실패

미합의 사항 및 협상 재개 일정 불투명

일러간 양국 EEZ 내에서 2025년 어업에 대한 협상이 합의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추가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2025년 상호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어획 쿼터에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일본 수산청이 11월 29일 발표하였다.

일본 수산청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는 일본 외에 러시아도 참여하므로 양국 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는지 말할 수 없다”라며 언급을 거부하였다. 그는 협상 재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 EEZ 내 지정된 구역에 대한 상호 조업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협력은 1984년 소련-일본 어업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일본-러시아 어업위원회가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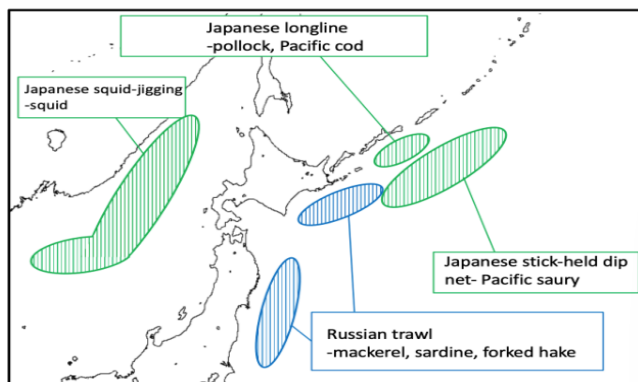
11월 25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는 2025년 어종별 쿼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입어로 지급 등 중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쿼터와 관련하여 태평양 콩치는 일본 어선의 핵심 문제로 부상하였으며 고등어와 정어리 쿼터는 러시아 어선의 논쟁 포인트였다.”라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우리는 보상비를 포함한 다른 운영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2024년 양국의 총 어업 할당량은 4만 4,000톤으로 설정되었다. 일본 몫에는 전년 대비 6,000톤 감소한 2만 5,842톤의 콩치가 포함되었으며 오징어와 태평양 대구 쿼터는 각각 5,619톤과 3,200톤으로 변동이 없었다.

러시아의 2024년 할당량에는 고등어는 8,000톤 감소한 3만 2,000톤, 정어리는 1만 톤이 포함되었다. 고등어 쿼터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작년 협상에서 특히 격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2월 2일자



<일-러 양국 조업 수역도>



美 트럼프 당선, 수산업계를 미증유의 상황으로

美 시장 단기적 구매력 증가 예상되나 관세 감안 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 수산물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수산 업계에 있어 트럼프의 집권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는 미국과 전 세계 수산물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관세: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2023년에 약 258억 달러 상당의 수산물 3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이 중 중국은 약 33만 6,000톤, 15억 달러 상당으로 각각 전체의 약 11%와 6%를 차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16년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5억 달러의 수산물 56만 4,000톤을 수입하였다. 즉, 중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은 불과 8년 만에 금액과 양 모두에서 40% 감소하였다.

수요: 전 세계 수산물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미국의 수요 감소는 미지수이다. 인플레이션은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핵심 이슈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소비는 감소하였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본질적으로 “판매세”라고 비난하였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수산물 가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방 지출: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이며,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 지출을 2조 달러까지 줄이는 데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어업 회사들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국내 식량 구매 프로그램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연방 기관 대상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해에 NOAA의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 매년 이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러시아: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긴밀한 관계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 무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일부 완화될 수 있으며, 러시아산 생선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를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수산 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트럼프의 이전 대통령직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변화를 불러왔지만, 일반적으로 공화당 행정부의 핵심 주제인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전반적으로 친기업적인 분위기는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임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추가될 것이다.

첫 번째로, 미국 시장, 특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모든 수출업체는 새로운 제후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모든 잠재적 영향 중에서 관세는 전 세계 수산물 산업에 가장 명백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양식 흰살생선이나 새우와 같은 어종은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대미 수출업체들도 달러 강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며, 이미 미국 통화는 급등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관세가 이



를 상쇄할 수도 있음).

반대로 명태와 연어와 같은 주요 수출 어종은 달러 강세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관세는 수입 수산물의 잠재적 부족과 수입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 국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면 전환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가공업체는 한편으로는 절차 및 규제 감소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의 계획 중 얼마나 많은 계획이 실현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의 극단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에는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이며, 경제 정책 일부는 당내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가장 공격적인 정책(관세)이 첫 2년 동안 트럼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미 수년간의 무역, 경제, 정치적 격변기를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수산업은 항상 혼란에 대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다. 아마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1월 7일자

세계 식량 가격 상승 가속화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

FAO 식량 가격 지수는 10월에 9월보다 2%(2.5%포인트) 상승한 127.4포인트로 2023년 4월 128.4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FAO는 지난달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한 전 세계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및 설탕 등 세계 무역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된 5가지 상품 그룹의 평균 가격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곡물 지수는 0.8% 상승한 114.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세계 밀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겨울 작물 파종에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향후 수확량에 대한 우려로 두 달 연속 상승하였다. 옥수수 가격도 브라질의 강한 수요와 아르헨티나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식물성 유지류 지수는 7.3% 상승한 152.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생산 감소 우려로 인해 5개월 연속 상승하였

다.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도 하락이 예상된다.

유제품 지수는 1.9% 상승한 139.1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계절적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치즈와 버터 재고가 감소하였다. 높은 수요와 함께 이러한 제품의 세계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설탕 지수는 2.6% 상승한 129.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설탕 가격은 2024~2025년 브라질의 생산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수요가 증가하였다.

육류 지수는 0.3% 하락한 120.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서유럽의 도축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세계 시장에서 닭고기의 가치는 수출국의 높은 공급량으로 인해 하락하였다. 또한 오세아니아 국가의 양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11월 19일자



세계 수산물 교역량, 지속 감소 예상

파나마 운하 능력 악화와 달러 강세 영향

새 FA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세계 수산물 무역량은 0.3% 감소한 6,830만 톤, 금액 기준으로는 1% 감소한 1,833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민과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물류 문제와 미국 달러화 강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FAO 분석가들은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의 통과 능력이 악화하여 2023년 11월 일일 선박 수가 평소 36~38척에서 24척으로 1.5배 감소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분석가들은 2025년에야 처리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홍해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희망봉 항로 7,000km 우회 등의 요인이 세계 무역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달러 강세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수산업 부문의 무역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는 개

발도상국뿐만 아니라 EU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도 수산물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전러시아수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시장은 2022년에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2년 연속 금액 기준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15년간 세계 수산물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연평균 점유율은 3%였다. 동시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 수산물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 세계보다 1/3 더 높았다. 세계 수출액은 1.9배(995억 달러에서 1,85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러시아 수출액은 2.2배(26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환율 수출 관세를 포함하여 올해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액은 57억 달러 미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portal, 2024년 11월 13일자

SEAFO 이빨고기 日 쿼터 274톤으로 증가

日 저연승선 1척 조업

남동대서양수산기구(이하, SEAFO)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나미비아에서 개최된 제21차 연례회의에서, 2025년과 2026년의 TAC에 합의하였다. 일본 어선에 대한 연간 쿼터는 이빨고기가 현행 261톤에서 13톤 증가한 274톤이 되었고, 왕홍게(オオエンコウガニ, Geryonidae) 쿼터는 362톤으로 유지되었다.

해당 수역에서 일본 선박은 원양 저연승선 1척과 원양 계 통발어선 1척이 두 어종을 어획 중이다.

SEAFO는 연례회의를 2년에 1회만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연례회의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2월 4일



BRC, 세계 수산물 시장 연간 성장률 7% 전망 인구 증가와 단백질 풍부 제품 수요 증가

BRC(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전문가들은 2024년 말 생선 및 수산물 시장 규모가 2023년 (BRC 추정치 기준 2,376억 달러)보다 7.4% 증가한 2,5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8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6.9%로 추산하였다. 이는 이전에 Imarc 전문가들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2024~2032년 3.24%)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시장 성장은 식단의 다양성, 건강한 식단 기준, 냉장 유통 물류의 개선으로 주도된다. 러시아 어선선주협회(ASRF)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향후 트렌드에는 어업 부문의 온라인 무역 발전, 요리 전통의 글로벌 상호 교류, 양식업 발전 지원도 포함된다.

시장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는 인구 증가(장기 전망: 2024년 82억 명에서 2050년 100억 명으로 증가)와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다.

업계 트렌드에는 생선 가공 기술의 개선과 제품의 고품질 보장, 유통기한 연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 포장재 생산이 포함된다.

ASRF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성장이 러시아 생선 수출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 제한(제재, 관세)과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는 수출 관세 형태의 내부 제한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 출처: Fishportal, 2024년 11월 7일

인도네시아와 중국, 수산 협력 강화 합작 투자 개발, 어선 및 쿼터 등 협력으로 지속성 달성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어업 기술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지난 9월에 체결된 국제 협약 이행의 하나이다.

이 문서(기술협력지침, TCG)의 서명식은 프라보워 수비안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외신은 보도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한권 농림부 장관이 서명하였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사크티 와후 트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하였다.

사크티 장관에 따르면, 9월 합의문에는 합작 투

자 개발, 어선 및 쿼터 관련 문제, 어획물 처리, 항구를 포함한 연안 수산 시설 건설, 과학 및 교육 교류 등 12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장관에 따르면 중국-인도네시아 수산업 협력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류 가공 발전을 통해 어업 지역 인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측은 수산 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평가를 실시하고 불법 어업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1월 13일자



EU 선단 2023년 어획량 감소, 어획물 가치 증가 어획물 가치 약 34% 증가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탯(Eurostat)은 최근 EU 국적 선단이 어획한 다랑어류 및 수산물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EU 최대 참치 선단을 보유한 스페인의 어획량 비중은 전체의 2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획물의 총가치는 증가하였다.

EU 선단은 2023년 동안 다랑어류 포함 수산물을 총 330만 톤 어획하였다. 이는 2022년도 어획량 대비 19만 톤 감소한 수치이다. 2018년 460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후, EU의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다.

EU 선단의 주요 국가로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수용량을 보유한 것은 스페인 선단이다. 스페인 선단은 주로 대서양과 인도양, 지중해에서 다랑어류 등의 어종을 어획한다. EU 선단의 규모는 척수, 수용량, 마력 등 모든 측면에서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EU는 선단 규모 감축이 공통어업정책(CFP)에 따라 어업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어류 자원을 보존하고 과도한 어획을 줄이며, EU 시

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CFP의 목표이다.

2023년 EU 선박이 양륙한 어획물은 톤수 측면에서 감소하였으나 가치 측면에서는 증가하였다. 어획물의 가치는 2022년에 15.1% 증가하였고, 2023년에 27억 유로로 33.8% 증가하였다. 스페인 선단이 양륙한 어류의 가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았는데, 다랑어류 어가가 높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EU 전체 어획량의 약 72%가 북동대서양에서 어획되었다. 동대서양에서 어획량은 전체의 6%를 차지하였다. 가다랑어는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 하나였으며, 주로 스페인과 프랑스 선단이 어획하였다. 서인도양의 어획 비중은 6%였고, 주로 어획된 어종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였다. 약 3분의 2를 스페인 선단이 어획하였다.

EU 선단이 어획한 다른 주요 어종은 헤이크, 대구, 넙치 등으로, 주로 대서양에서 어획된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29일자





북동대서양 어업 관리 최근 악화

러, 심각한 위반 미인정 및 후속 조치 미이행 예정

EU는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의 연례 회의에서 규정 준수 미이행과 불법 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11월 15일 종료된 이번 회의에서 NEAFC 역사상 처음으로 규정 준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NEAFC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EU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 회의에는 EU,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였다.

“EU는 NEAFC 역사상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부 NEAFC 당사국의 선박이 관련된 NEAFC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NEAFC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른 선단의 위반 행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U는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된 수역 밖에서 미허가 저층 어업을 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난하였다.

“러시아 선박은 지정된 저층 조업 수역 밖에서 NEAFC에 통보하지 않고 저층 조업을 하였다.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NEAFC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역 밖에서의 조업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EU는 파나마와 바하마에 “협력적 비협약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해당 국가의 일부 선박을 NEAFC IUU 목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두 국가에 대한 지위 부여의 적절성 여부와 IUU 목록 수정에 대한 결정은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NEAFC는 고등어, 청대구, 청어의 어획 한도 설정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제해양과학위원회(ICES)의 주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EU는 획득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토-스칸디나비아 청어에 대한 연안국의 협의에서 포괄적인 공유 협정의 부재와 EU에 대한 위협조적인 태도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ICES는 고등어 쿼터를 57만 6,958톤 이하로 권고하였는데, 이는 2024년 권고치인 73만 9,386톤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2013년 이후 최저치이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올해 여러 회원국의 예상 어획량 합계를 95만 4,112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쿼터 공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ICES는 또한 노르웨이 봄-산란 청어의 2025년 쿼터를 40만 1,794톤으로 권고하였는데, 이는 2024년 권고보다 3% 증가했지만, 올해 예상 총어획량보다 10% 낮은 수치이다.

대서양에서 어분과 어유 생산에 중요한 어종인 청대구의 경우, ICES는 어획량을 145만 톤 이하로 권고하였다. 이는 2024년 권고치보다 5% 낮고 올해 예상 어획량보다 23% 낮은 수치이다.

한편, NEAFC 회의에서 위원회는 어빙저해의 적어 자원 회복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어의 직접 어업을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다.

EU의 주도로 NEAFC는 어빙저해에서 적어 어획 러시아 선박에 대한 EU 항구 접근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EU는 NEAFC 당사국에 가능한 한 빨리 동일 조치를 도입하여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방지하는 것과, 러 선박의 자국 수역 접근 제한을 촉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22일자



제48차 러-페로 제도 간 어업위원회 회의 개최

양국 간 협력으로 수산자원 확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서 제48차 러시아-페로 어업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측은 바렌츠해, 노르웨이해 및 페로 제도 조업 수역의 자원 현황을 논의하고 2023년 바렌츠해 및 페로 제도 조업 수역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 결과 및 2024년 경과 기간의 조업 예비 결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교환하였다.

양측은 수산자원 및 새우 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수산물에 대한 공통 환산 계수, 2025년 양측의 어업 허가 발급 절차에 대해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어선에 대한 위성 추적 및 전자 데이터 교환, 과학 연구 작업의 공동 프로그램 문제를 고려하고 2025년 상호 쿼터량에 대해 합의하였다.

2025년 러시아 어선들은 페로 제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청대구, 고등어, 청어 조업이 가능해진다.

덴마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로 제도와 러시아는 서로의 수역에 대한 상호 접근과 쿼터 교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정부 간 협정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지만, 양측 모두 어획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덴마크 언론은 페로 어민에 대한 쿼터 감소가 어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총허용 어획량에 대한 러시아-노르웨이 협상 이후 어획 한도

축소가 예상되었다. 양측은 2025년 대구의 총허용 어획량을 크게 줄였다고 Fishnews 특파원이 보도하였다.

외신에 따르면 내년엔 페로는 러시아 수역에서 744만 톤의 대구와 1천 톤의 대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비해 각각 23.8%와 4.5% 감소한 수치이다.

페로 수역에서 900톤의 가자미와 4천 톤의 새우 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업 규정도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두 척이 동시에 조업할 수 있었으나, 2025년에는 러시아 수역에서 한 번에 한 척의 페로 트롤 어선만 새우를 잡을 수 있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페로 수역에서 청대구 조업에 대한 할당량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7만 5,000톤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 어민은 이 쿼터 중 최대 5만 2,600톤을 페로 수역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어는 34.3%, 청어는 10.5% 감소하여 각각 8,080톤과 5,800톤으로 제한하였다.

외신은 페로 어업 대표들이 이번 합의에 만족하였다고 전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11월 29일,

Fishery.ru, 2024년 12월 4일자



사할린 연어 어획량 예측, 57%만 충족

최근 짝수 해 중 가장 적은 양 기록

올해 연어 어획량에 대한 초기 예측은 사할린에서 56.8%만 달성하였다. 과학자들은 총어획량이 9만 2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5만 8,200톤을 어획하였다.

사할린 어업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연어 어획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다. 니콜라이 콜파코프 VNIRO 지역 대표에 따르면 가장 풍부한 연어종인 곱사연어는 5만 3천 톤 이상 어획이 예상되었으나 3만 2천 톤만 어획되었고, 3만 5,200톤 어획을 예상한 연어 (Chum salmon)는 1만 8,600톤 정도만 어획되었다.

은연어는 예상치인 428톤 이상인 712톤이 어획되었다. 흥연어와 시마연어는 예상치 미만이었다.

올해 사할린의 여러 상업 어장, 즉 크릴리온곶에서 포기비 곶, 모르드비노바 만과 테르페니야 만에서 상업용 곱사연어 어업이 개시되지 않았다.

시간에 따라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의 총어획량은 최근 짝수 해 동안 가장 적은 양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9만 5,400톤을 초과하였고 2022년에는 6만 7,100톤의 연어를 어획하였다.

2024년 11월 초까지 극동 지역의 연어 어획량은 23만 4,700톤을 기록하였다. 당초 예상은 약 32만 톤이었다. 연어 생산의 선두 지역인 캄차카는 13만 700톤의 어획량으로 올해 어획을 마쳤다.

* 출처: EastRussia, 2024년 11월 7일자

러, 2024년 수산 제품 생산량 감소

필렛과 통조림 등 제품 생산은 증가

2024년 1월~10월 러시아 수산 제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360만 톤을 기록하였다.

1. 냉동 생선 생산량은 12% 감소한 23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원인은 태평양 연어 어획량이 작년 대비 2.6배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냉동 생선 필렛의 생산량은 5% 증가하여 최대 2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동시에 11월 중순 기준, 어선의 청어 필렛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증가하여 최대 5만 6천 톤에 달하였다.

3. 통조림 생선 제품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6만 3천 톤이 생산되어, 2022년 감소 이후 회복

세가 지속되고 있다.

4. 보존 생선 식품의 생산량은 17% 증가한 9만 1천 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어(11월 24일까지 11% 증가한 37만 7천 톤 어획)와 정어리(10% 증가한 51만 3천 톤 어획)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냉동 갑각류 생산량은 27% 증가하여 9만 3천 톤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은 러시아 새우 어획량이 10월까지 전년 대비 15% 증가 2만 5천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출처: Rybny soyuz, 2024년 12월 3일자



페루, 수산물 수출 증가

수산물 수요 증가로 주요 공급국 입지 확보

2024년 9월까지 페루의 생선 수출액은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9% 증가한 31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페루 생산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수치이다.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 장관은 어분, 어유, 생선 통조림, 고등어, 멸치, 참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페루 생산부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페루는 세계 수산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페루 수산물의 주요 시장은 중국, 미국, 스페인, 칠레, 일본, 한국이다. 이들 국가를 합하면 총수출액의

73.4%인 23억 4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페루는 10대 수산물 수출국에 속하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 어분을 공급하는 선두 주자이다. 러시아 어업 생산자들은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해 페루와 경쟁할 수 있다. 전러시아수산업협회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러시아 어분 수출의 잠재적 성장률은 2023년까지 4.3배, 최대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말 5%(2억 6,180만 달러)였던 러시아 수산물 수출에서 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1월 27일자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명태(明太), 그 빛나는 큰 이름

이 승 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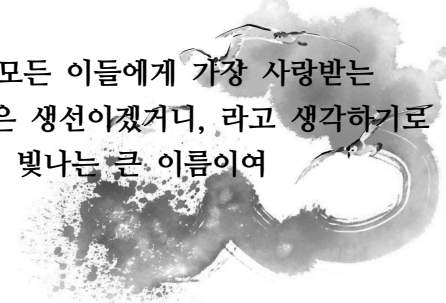
제 이름은 본래 명태(明太)랍니다. 함경도 명천(明川)에 사는 태씨(太氏) 성을 가진 어부가 잡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래요. 어릴 적 새끼 때에는 노가리라고 부르더니 크고 나서는 하도 여러 이름으로 불려, 듣는 이조차 헛갈린다고 합니다.

생태 동태 북어 황태 흑태 먹태 강태 원양태 왜태 간태 짝태 관태 쥘태
백태 깡태 파태 골태 무두태 낙태 봉태 애기태 증태 대태 반찬태 그물태
낙시태 일태 이태 사태 오태 춘태 막물태 코다리 포란태 비포란태...

때와 장소에 따라 저들 입맛에 따라 불리다 보니 글썽 이름이 쉼 가지가 훌쩍 넘어, 한번 쪽 불러보는데도 숨이 찰 지경이지요. 누군들 굴비나 은어 같은 멋진 별칭 하나 갖고 싶지 않겠소만 체통머리 없이 먹태 짝태 낙태로 마구 불러대니 기분이 좀 거시기합니다.

그럼에도 달리 생각해보자면, 불리는 이름이 이리 많다는 건, 어디 그냥 하찮은 생선이겠소. 설령 고급진 생선 족보 반열에 턱하니 오르진 못했어도, 서민들 삶과 애환을 함께하는, 그래서 가장 즐겨 찾는 바닷고기 아니겠소.

그러니 다양한 이름을 가진다는 건 모든 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생선이겠거니,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생선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명태(明太), 그 밝게 빛나는 큰 이름이여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37% 감소, 수입량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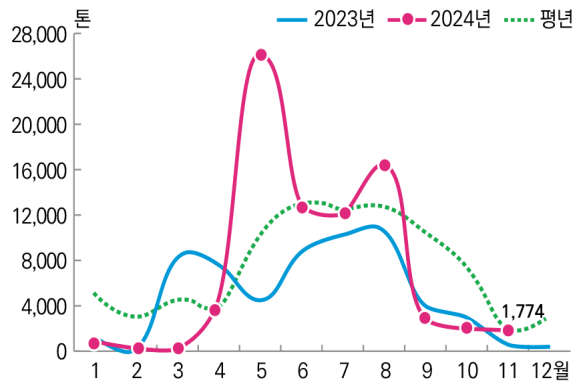
□ 생산동향(11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15% 감소)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14.8% 감소한 1,774톤으로 평년과 비슷하였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전월 대비 76.0% 감소한 283톤으로, 작년 동월보다는 많았으나 평년(1,680톤) 대비 83.2% 적었다.

전월에 이어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주요어장인 동해의 살오징어 자원 밀도가 낮았으며, 어장 형성이 크게 부진하였다.

수협별 위판량은 후포수협이 34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울릉군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이 각각 28톤, 속초수협 24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11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전월 대비 65.3% 증가한 1,491톤을 반입하여,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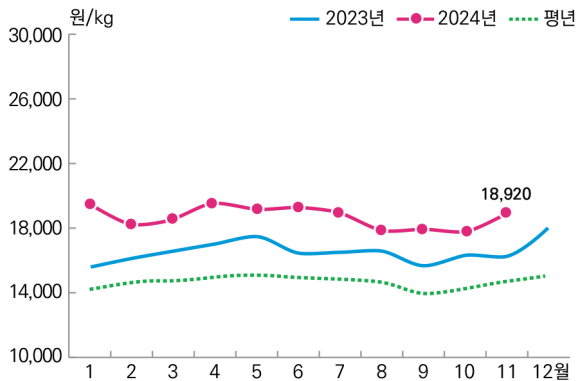
11월 기준 원양산 오징어의 누적 반입량은 6만 7,44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1.3%, 61.0% 많았다.

□ 가격동향(1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6% 상승)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10.2% 상승한 kg당 1만 3,706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4%, 102.4% 높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5.0% 상승한 kg당 1만 4,014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7%, 33.6%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8,920원으로 전월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15.9%, 30.0% 높았다.



연근해 생산 부진이 지속되며 산지 및 도·소매 가격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보다도 높았다.



□ 수출입동향(11월 오징어 수출입 전월 대비 감소)

11월 오징어 수출량은 3,102톤으로 전월 대비 31.5% 감소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87.9%, 139.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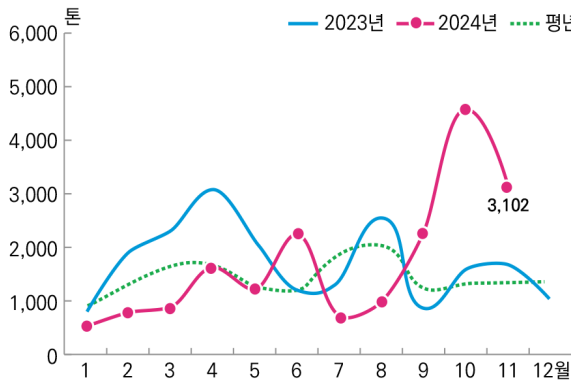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스페인으로의 수출량이 92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683톤, 남아프리카공화국 43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2,27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645톤, 조미오징어 146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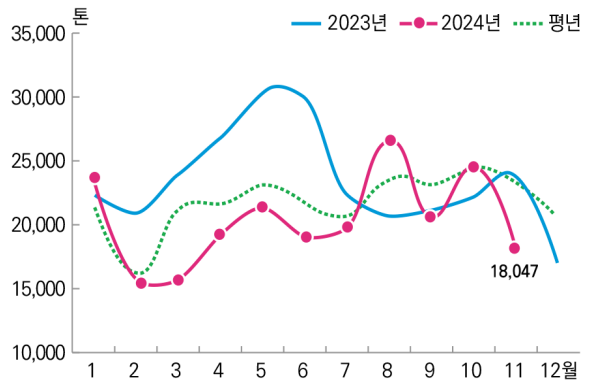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26.5% 감소한 1만 8,047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3.8%, 23.1% 적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만 2,67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페루산 1,673톤, 칠레산 1,816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8,608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6,215톤), 조미오징어(2,884톤), 건조오징어(337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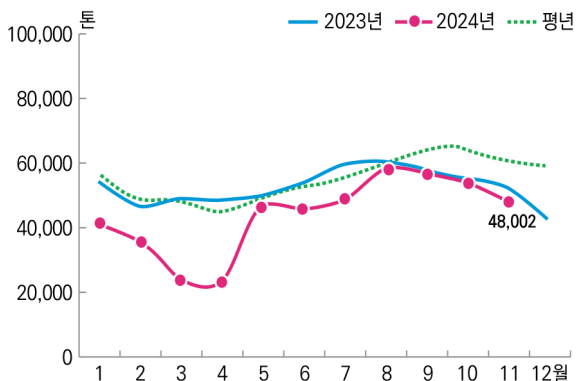
□ 재고동향(11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1% 감소)

11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생산 및 수입이 줄며 전월 대비 11.4% 감소한 4만 8,002톤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적었다.

이 중 연근해산은 1만 1,316톤으로 전월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6%, 41.4% 적었다.

원양산은 전월 대비 13.1% 줄어든 3만 6,68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6%, 10.8% 적었다.

< * 출처: KMI 수산관측 12월호 >





11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17% 감소, 소비자가격 6% 하락

□ 생산동향(11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감소)

11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 대비 71.1% 감소한 1,529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60.6%, 65.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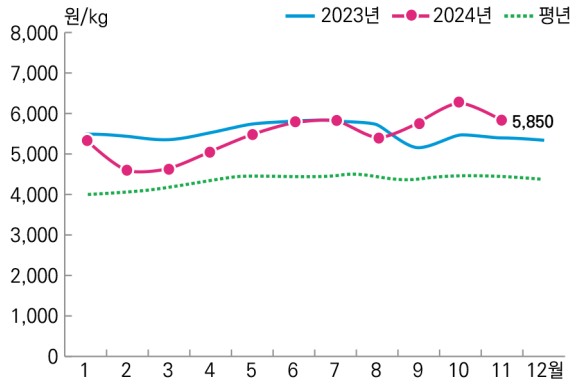
11월까지 누적반입량은 2만 2,757톤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28.6% 증가하였다.

한편, 12월 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2만 8,353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97.8%를 소진하였다.

□ 가격동향(1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한 kg당 5,850원)

1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212원으로 전월보다 2.9% 하락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1%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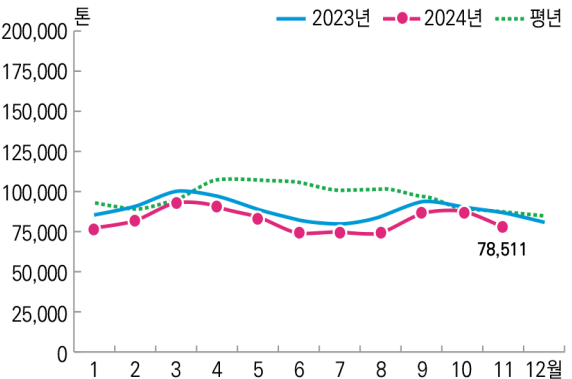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850원으로 일부 대형 소매점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전월 대비 6.0%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9.3% 높았다.



□ 재고동향(11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반입량과 수입이 줄어 전월 대비 10.3% 감소한 7만 8,511톤이었다.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9.9%, 9.7% 적었다.





□ 수출입동향(1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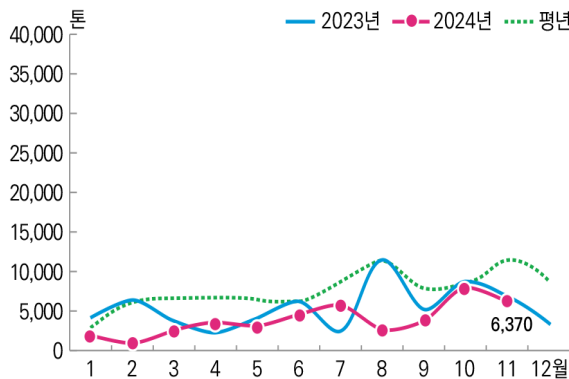
11월 명태 수출량은 6,370톤으로 전월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3.7%, 46.3%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중국과 일본으로 각각 2,566톤, 312톤이 거래되었으며, 냉동연육은 중국 316톤 태국 311톤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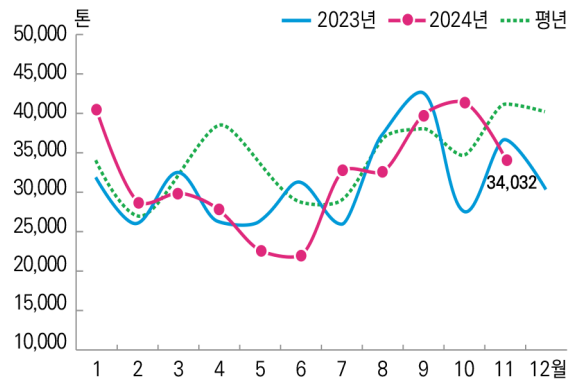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17.4% 감소한 3만 4,032톤이었다.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7.4%, 19.3% 적은 양이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1,52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산 냉동연육(7,298톤) 러시아산 냉동필렛(6,067톤), 러시아산 냉동연육(5,060톤) 등의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 출처: KMI 수산관측 12월호 >



대해수산, MSC 인증 취득

우리나라 다랑어 어선의 72%가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

12월 9일 열린 MSC 인증 수여식을 통하여 부산의 원양수산물 어획 및 수출 전문기업인 대해수산이 다랑어 연승어업의 MSC 인증을 취득하였다.

MSC 인증은 전 세계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세 가지 원칙 △수산자원량 보전 △생태계 영향 최소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아래 27개의 세부지표를 모두 충족한 어업에만 부여되는 엄격한 인증이다.

대해수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반의 심사 과

정을 거쳐 지난 9월 인증을 취득하였다, 대해수산이 인증받은 어업은 중서부 태평양(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과 동부 태평양(Eastern Pacific Ocean) 어장에서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을 어획하는 다랑어 연승어업이다.

MSC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의 약 52%가 M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30만 톤의 다랑어 제품에 MSC 에코라벨이 표기되어 유통되고 있다.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우리나라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63% 증가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7일(수)부터 12월 3일(화)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콩치류 외 고도회유성 어족(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 소형어(30kg미만) 어획한도(718톤)는 종전과 동일하며, 대형어(30kg 이상) 어획한도를 30톤에서 501톤으로 확대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식품 가공 시 약 500억 원 이상의 어업인 소득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참다랑어 쿼터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2위 품목인 참치 수출 물량이 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연례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고래류 보호조치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조치 또한 약 4년간의 논의 끝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신설)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참다랑어 어획 한도 증대 결정은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하여 국내·외에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 수출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양업계, 수산업 선진국 수준 향상에 기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 2위 차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그만큼 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도 많다.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는 국내 식품 제조, 유통, 외식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에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종으로 등록되어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총 707개였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1위에 선정된 기업은 사조대림이다. 사조대림은 1조 4,394억 1,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으로 1945년 광복 이후 '낙후된 국내 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라는 사명하에 1964년 5월 수산물의 첫 수출을 계기로 외화 획득에 앞장섰으며, 각종 냉동·냉장식품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사조대림은 대림선 어묵, 게맛살 등 연육 제품과 냉동·냉장식품, 젓갈류, 김·미역 등 해조류, 절임류 등 다양한 식품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수산업계 최초로 과학적 최신 위생관리 기법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일일 배송 시스템으로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수산 부문

에서는 세계 최다 횡감용 참치 선단을 가진 사조그룹과 수산 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오는 시너지 효과로 트롤 분야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위에 선정된 기업은 한성기업이다. 한성기업은 3,20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제1한성호로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1972년 국내 최초로 명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였다. 국내 최초로 고급 게맛살 '크래미'를 출시하였으며 수산식품업계 최초로 양념 젓갈이 HACCP 인증 식품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과 해외 합작 사업을 필두로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현재 트롤, 참치연승, 채낚기 등 다양한 선단으로 수산자원을 직접 어획하고 있다. 북양트롤선은 북태평양 수역에서 명태를 어획하며, 척당 연간 7천여 톤을 어획한다.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횡감용 참치는 참치연승선이 척당 약 400톤을 어획하고, 채낚기 어업으로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척당 연간 1,500여 톤의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다.

* 출처: 냉가(11월호), 2024년 11월 30일자



우리나라, '해양 국가'인식에 비해 관심 부족 해양주의 철학적 기반 위에 국가 정체성 확립해야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발표한 ‘세계해양 잠재력 지수’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해양 강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양 CEO 아카데미’ 특강에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대한민국의 해양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바다가 맺은 관계를 분석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원장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해양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

라고 역설하였다. KM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4%가 대한민국을 해양 국가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민이 국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비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은 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며, 해양주의와 같은 철학적 기반 위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공감이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출처: 부산일보, 2024년 11월 25일자

우리나라 EEZ 내 아열대성 어류 산란해역 늘어 새로운 어종 어린 물고기 유입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EEZ 이내에서의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수과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와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체 수의 밀도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에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되

었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하여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하였으며 개체 수의 밀도 역시 증가하였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되어 다량으로 채집되었다.

아울러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을 형태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4년 12월 6일자



올해 명태, 대구, 오징어 수입량 감소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

명태의 9월까지 국내 수입량은 14만 8천톤으로 대 러시아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하였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수입량은 5만 5천톤으로 지난해 대비 19.9% 증가하면서 상반기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러시아산 및 미국산 명태는 올해 국내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가 하락에도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명태 수입량 중 냉동 원물이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냉동 연육 13.7%, 냉동 필렛 11.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총수입액 비중은 러시아가 78.8% 미국이 15.0%를 차지하였다.

대구 9월까지 수입량은 1만 1천톤으로 대 러시아 및 미국 수입 감소로 지난해 대비 30.3% 감소하였다. 하지만, 3분기 수입량은 4천톤으로 지난해 대비 8.3% 증가하면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최근 대구 자원량 감소에 따라 상품성 높은 크기의 대구 공급이 감소하면서 대구 수입량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의 대구 생산도 감소하면서 대체재로 중국산 신선·냉장 대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대구 수입량 중 냉동 대구 원물이

85.3%, 냉동 필렛이 7.5%, 신선·냉장 대구가 6.8%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총수입액 비중은 러시아가 70.0%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8%, 중국 5.5%를 차지하였다.

오징어의 9월까지 수입량은 10만 5천톤으로 대 페루, 칠레의 수입 감소로 지난해 대비 10.5% 감소하였다. 하지만, 3분기 수입량은 3만 9천 톤으로 지난해 대비 11.4% 증가하면서 명태와 같이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페루 및 칠레 수입량은 고수온으로 인한 홉볼트오징어 어획 부진, 페루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수입량도 감소하였다.

일렉스 오징어 생산 호조로 국내 원양산 생산 증가 외에 아르헨티나, 대만, 스페인산 등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오징어 수입량 중 냉동 오징어가 72.6%, 조미 및 자숙 오징어가 26.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총수입액 비중은 중국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페루 19.6%, 칠레 6.1%, 아르헨티나 5.5%를 차지하였다.

* 출처: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2024년 11월 20일자